

제 1 장 남은 자손의 형성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의 행복 중에 두시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役事)를 하심에 천사를 쓰지 않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셨으며 그 인간들을 통하여 기별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생활과 역사(歷史)를 통하여 실물교훈이 되게도 하셨다. 결국 이 일을 맡은 자들은 구원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며 동시에 이들은 남은 자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하는 자들이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개인적이던 이 일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으로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게 하실 약속을 하신 후에는(창 12:1~3, 갈 3:8)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역사적 실물 표상이 되었었다. 이제 이들의 역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어떤 상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저희의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1),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롬 15:4).

1. 애굽과 죄의 세상

모세의 인도를 받으며 애굽에서 나아온 이스라엘 60만 여명은 자원해서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굽에 살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요셉이 죽고 애굽의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은 이 유불문하고 종이 되었었다(출 1:8~14). 종된 그들의 생활은 괴롭기 한이 없는 생활이었다, 그들은 그 조상의 명예도 잊어버렸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한 영광스러운 장래도 잊어버렸다. 그들은 고생을 낙으로 생각하여 종의 생활이 본성으로 화하여 갔다.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은 인류의 이 최악 세상에서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다. 애굽은 영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인데(계 11:8), 그곳은 곧 이 세상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이 세상을 선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인데 이것을 느끼지도 못하며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자연적인 상태인 줄 알고 살아가면서, 고난과 질고와 사망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죽고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망의 땅이며 흑암의 그늘진 곳(마 4:15:16, 시 23:4)이라고 지적하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히 2:15)이며 그의 일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며(시 90:10) 마침내 그 무서워하던 죽음에 삼키어 일생을 마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최악 중에 태어나며(시 51:5) 죄를 짓는 것이 본성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일생을 지내는 것이다(요 8:34).

옛날 애굽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공언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출 5:2). 바로는 이 세상 임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마귀는 세상의 왕이 되어(눅 4:5~6, 요 14:30) 바로가 이스라엘을 혹사하듯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2. 출애굽과 구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려고 일을 시작하셨다(출 3:1~8).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방법을 지시하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었다. 유월절(逾越節)이란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빔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여 예비해 두었다가 14일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칠하였다. 그 밤에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피가 칠해진 집은 넘어갔다(출 12:1~42).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430년만에 애굽에서 나아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 역사는 죄의 세상에 사는 죄의 종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죄의 왕국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말이다.

1) 유월절 양과 피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은 죄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는 것을 뜻한다. 그 피를 믿음으로 그 피가 죄인의 죄를 속하고(엡 1:7), 심판을 면케하고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계 1:5,6) 것이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을 벗어나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오는 것이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람을 얻었도다"(골 1:13,14).

2) 홍해를 건넌 것과 광야생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육지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한달 이내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출 13:17~22). 그리하여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광야에서 진치고 살게하시며, 하늘 양식인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여 40년을 교육하시며 권능의 팔로 체험케 하여 보호하셨다(시 78:12~16).

이렇게 하신 뜻은 역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상징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배려인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고전 10:1~3).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때 애굽인이 추격하다가 홍해에서 죽었다. 이렇게 하므로 애굽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것을 뜻하였다.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 믿을 때 죄악 세상과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것을 뜻한다(롬 6:1~6, 갈 6:14).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는 것이다(행 7:38).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만의 집단을 이루고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지도 아래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 혹은 여호와와 회중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말로 총회, 회중이라는 말은 "까할()"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되었는데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러낸 무리라는 말이요 교회라고 번역된 말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강 같은 물을 마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가,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양식을 먹고(요 6:32~35),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요 7:37~39)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국가를 건설하였다.

요단강을 건너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변화하여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상징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건설한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건설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되어 모든 일이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살펴볼 때 그렇게 상징될 수만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3) 국가 건설과 포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건설하여 열국의 보배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영원한 메시아 왕국 건설의 완전한 표상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실패함으로 완전한 의미로 위와 같은 상징이 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가나안 입주하는데서 끊어서, 그 상징성을 찾아 해석하려면 위와 같은 해석은 합당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까지 다 연결하여 그 상징성을 찾을 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국가를 건설한 것도 그리스도 교회의 형성과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이다.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가 나타내고 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리라"(히 4:8).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을 점령한 것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 국가를 건설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교훈에도 불구하고 배도하였다(호 12:10,13,14, 8:12, 렘 25:3,4). 선지자 아모스는 광야시대와 국가를 건설한 시대를 동시대로 묶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였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암 5:25~27). 이 말씀은 스데반에 의하여 바벨론에 포로 되어갈 사실로 해석되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사십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행 7:42,43).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 국가적 배도로 말미암아 다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그 속박 중에 70년을 지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엉뚱하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일의 발단은 유다의 부흥의 군주인 히스기야의 실수에서 왔다. 그는 종교 개혁에 일단 성공하였고 나라를 외적(外敵)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그 외적은 형제국(兄弟國)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의 막강한 군대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룻밤 사이에 185,000명이나 되는 앗수르 군사를 무찔렀다(왕하 19:20, 35).

이런 일로 작은 나라 유다는 열국에 명성을 얻었고 히스기야는 건고하여졌다(대하 32:20~23).

히스기야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후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은 번영하고 존귀하여진,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을 향하여 치닫는 히스기야에게 보내진 경고였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응답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으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는 자연 현상의 역류를 일어나게 하셨다(사 38:1~22).

이 기적으로 세계의 열강들은 놀람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일관(日官)들에게 그 원인과 나라에 미칠 영향을 밝히라고 명하였다.

그 중에 한 나라였던 바벨론은 사자를 파견하여 예물을 보내며 치하하였다.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앗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으나 후일에 대 제국이 될 나라였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바벨론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진리의 종교를 전달하고자 하셨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절호의 기회를 자기 자랑하는 일로 허비하였다. 질병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별을 올바르게 소화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용해야 하는 교훈을 받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이 잠시 동안 그를 떠났고 그는 교만에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는 씨를 뿌렸다(사 39:1~8, 대하 32:24~31). 이사야의 책망과 비록 늦기는 했으나 히스기야의 회개로, 포로될 일은 히스기야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으나 그 씨앗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일어난 왕들의 배도와 불충성으로 마침내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을 예언하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문에 불을 놓고,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고 탄식하였다(렘 17:19~27, 25:1~11).

과연 유다는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 군사에게 에워싸이고 사로잡혀 갔다(단 1:1,2). 이리하여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간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 큰 권능의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을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출 20:1,2, 신 5:15)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과 행복을 주려 하셨으나 그들이 배도하므로 또 다시 종이 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 일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구원된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3. 구원의 이중성과 교회

이상에 기록한 이스라엘 민족의 슬픈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징적 사건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원의 이중성을 이와같이 예언하였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렘 16:14,15, 23:7,8).

이스라엘 민족은 종 되었던 애굽에서 한번 구원을 받아 국가를 건설하였으나 그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다시 종의 멍에를 메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 포로 되었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북방 땅은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다.

성경은 대체로 동방은 바사를, 서방은 헬라를, 남방은 애굽을, 북방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유다 나라를 중심으로 그들과 관계 있는 동서남북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70년 기간이 차매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조서를 발표하게 하시고 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셨다(대하 36:22,23, 스 1:1~4, 단 9:1,2).

하나님은 이 돌아올 때를 바라보시면서 아직 포로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기를,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속히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형벌과 재앙에서 벗어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전파하라고 하셨다(사 48:20, 렘 50:8, 51:6, 44, 45, 스 2:7).

고레스가 해방 조서를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선뜻 바벨론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떠나 나왔다. 그들은 먼저 성전을 재건하였다(스 3:2,10, 6:15). 이 일에 많은 방해가 있었다. 이스라엘 족속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뭉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때 하나님은 다시 다리오 왕을 감동하여 두 번째 조서를 발표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이 자유롭게 바벨론 지역에서 떠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때는 기원전 519년경이었다.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지 거의 17년이 지난 후였다(고레스 조서는 536년).

이스라엘은 다리오의 조서에 힘입어 마침내 성전 재건을 완성하였다(BC 516년경, 스 6:15). 그러나 그들의 도성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폐하였고 성정 봉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70년 세월을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 황폐한 고토로 향하여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씩이나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가 이미 예언적으로 주어졌건만, 머뭇거리며 이미 안정된 바벨론에서의 생활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이 때에 뜻밖에도 벽력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사 총리대신 하만의 유대 민족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이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하여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예비하여 유대 민족을 구원하셨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당하고 바벨론 지역을 속히 떠나야 할 것을 다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아닥사스다의 세 번째 조서가 내려졌다. 물론 에스더서의 사건이 있는 후(BC 477년경에 있었다.) 약 20년이 지난 BC 457년에 내려진 조서였다.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에스라에게는 유대 민족에 대한 자치권이 주어졌다(스 7:11~28). 그 후에 다시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람의 지도와 민족의 헌신으로 성곽이 정비되었다(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라).

그 후에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개혁을 단행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을 개혁하였다. 가정에 배어든 이방적 요소를 몰아내고 가정적인 거룩한 헌신을 이루게 한 것이다. 특

히 이방 결혼을 단호히 처리하여 이방의 감화가 결단코 가정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느 13:15~31, 스 9:1~10:44).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계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남은 자"라고 부른다. 이 남은 자들이 가정을 개혁한 기록인 느헤미야 13장을 끝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는 끝맺었다. 그 후에는 신약 성경이 나타날 때까지 거룩한 기록이 없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남은 자손이 마땅히 개혁해야 할 일에 대하여 책망하고 예언하였다.

그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면 ① 제사장들의 허물을 책망하였는데 곧 합당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법을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실에 대한 책망이다(말 1:1~2:9). 이것은 곧 참된 예배의 회복을 주장한 것이다. ② 혼인생활의 불성실을 책망하였다(말 2:10~17). 이것은 가정의 경건을 주장한 기별이다. ③ 메시아의 선구자를 보낼 것을 예언하였다(말 3:1~6). ④ 십일조와 헌물을 성실히 드리지 않는 일에 대하여 책망하였다(말 3:7~12). ⑤ 의인과 악인의 장래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였다. 이 일을 위하여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말 3:13~4:6).

이것은 메시아의 선구자가 이르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때에, 하나님의 창고에 그 사업을 위한 넉넉한 자금이 있어야 할 것과, 그러므로 마침내 하나님의 사업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기별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개혁하고 그 남은 자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의 사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별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해석하는 역할로써의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느헤미야 13장으로 끝났으며 예언은 말라기로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어떻게 현대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졌는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출애굽에서부터 국가 건설은, 죄악 세상에서 죄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사실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국가가 배도하여 마침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진리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 침투를 받아 진리가 혼합되어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을 예언과 상징으로 기록해놓은 것이 계시록 12장이다. 거기에 해를 옷입은 여자는 순결한 복음 교회를 상징한다. 붉은 용은 이 교회를 핍박하여 1260년 동안 박해를 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표면상 나타난 그리스도교회 곧 천주교로 불리는 교회는 바벨론의 성질을 나타내었다. 계시록은 이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였다(계 17:1~5, 14:8). 이 교회의 이름을 가진 바벨론이 성도들을 핍박하여 그 피에 취하였다(계 17:6). 1260년 동안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는 고대 이스라엘의 신실했던 사람들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등으로 대표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극렬한 풀무불의 시련과 고난을 당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였다. 더러는 마치 바벨론이 그들이 안주(安住)할 처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바벨론화 된 교회에 머물러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일인 줄 알고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해방 조서와 예루살렘 재건 조서가 내려지므로 이

조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속히 떠나라는 예언을 기억하고 유다의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남은 자손을 형성한 것처럼 계시록 14장에 예언된 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에서 해방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게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기별인 것이다.

이 기별이 전파되므로 비로소 교회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안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바벨론은 순수한 복음 진리를 떠나서 혼잡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인 것이다.

이 교회는 세상의 정권과 결속되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누리며 강제로 그들이 교리에 복종케 하고 그 명령을 양심적으로 거절하는 자에게 핍박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은 다니엘서와(7:25) 계시록에 예언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예언된 것과 같다.

그러나 그 기한이 차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를 통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므로 바벨론에서 나아오라는 일차 기별이 전파된 것이다.

그러나 밀러의 이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이었고 그 때에 재림이 없으므로 큰 실망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일을 인하여 현대 바벨론에서 나온 참된 현대의 남은 자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예언적으로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계산을 하였는데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하이라ם 에디슨(Hiram Edson)은 그 이튿날 형제를 방문하는 길에 그의 옥수수 밭을 지나다가 잠간 계시의 빛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광경이었다. 그는 즉시 성경을 펼치고 히브리 9장에 나타난 하늘 성소에 대한 기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10월 22일에 재림이 아니요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고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현대 남은 자손이 성전을 바라보고 성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으므로 영적 의미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소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되자 자연스럽게 성소의 중심인 법궤의 의미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안식일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안식일 진리를 깨달으므로 비로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벨론에서 나아오라는 확실한 기별임을 깨닫게 되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이기 때문이다(계 14:7). 창조주를 경배하는 길은 창조의 기념일로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신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지 않았다.

고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성전을 재건하고 안식일을 회복한 것처럼 현대의 남은 자도 안식일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안식일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를 올바르게 경배하는 확실한 표징으로 주어진(겔 20:20) 것을 깨닫게 되자, 일요일을 지키는 모든 교회가 오류들로 혼잡된 교리를 가진 현대 바벨론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런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벨론에서 나아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곧 최후의 남은 자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남은 자는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다스리고 교육하는 일에 성공해야 한다는 기별을 받았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를 통하여 가정 문제에 대한 기별을 그렇게 많이 준 것은 이

것이 말세에 남은 자를 참된 진리 안에서 보존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남은 자손이 가정 문제를 완전케 함으로 그 역사를 끝맺었듯이 오늘의 남은 자의 가정 문제도 반드시 진리 안에서 온전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역사를 거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결말을 이루게 되는바 이것을 구원 역사(役事)의 이중성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리라"(렘 16:14,15).

제 2 장 남은 자손의 뜻

성경에는 남은 자의 의미를 가진 몇 가지의 낱말이 있다. 이 낱말들은 의미상으로는 남은 자를 가리키는 동일한 것이나 그 쓰여진 경우를 따라서 그 남은 자의 상태가 약간씩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게 쓰여졌다. 물론 이 느낌의 구별은 절대적으로 항상 그렇게 구별되어 그런 경우에만 그 단어가 쓰여진 것은 아니다. 대체로 그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그 낱말들을 쓰인 경우를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자.

1.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남은 자이다.

창세기 7:23에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남은 자에 대한 성경 최초의 기록이다.

여기 "남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아르"인데 "나머지"를 뜻하는 말이다. 이 같은 단어가 남은 것을 가리키는 일에 자주 사용되었으나 두어 곳만 찾아보면 역대하 30:6에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에서 종교개혁과 신앙 부흥을 일으키고 그 여세를 몰아, 이미 앗수르에게 망해버린 북쪽 이스라엘에 환난을 피하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 부흥과 개혁에 초청하면서 "쉐아르"라는 말을 썼다. 또 창세기 42:38에는, 야곱이 요셉을 잃고 베냐민만 남아 있는 사실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다.

이상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살아남는 일임을 보여 주는 것들이다.

방주는 홍수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울타리인 것이다. 베냐민의 경우도 그와 같이 이해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에 화를 당했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쉐아르"라는 말이 쓰인 경우를 살펴보니 요셉이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 자기를 증오하는 형들에게 갔으므로 화를 당했는데(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으나 사건의 경위가 이와 같이 되었다는 뜻이요, 요셉이 아버지 곁을 떠난 사실이 죄라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안전했을 것이다. 베냐

민은 아버지 곁에 있었으므로 "쉐아르"가 된 것이다.

또 북쪽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도 앗수르 왕의 공격을 피하고 사로잡힘을 면한 것은 안전한 곳에 숨었기 때문에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즐거이 머무는 자는 모든 전쟁과 환난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이다. 이 사랑과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요일 3:1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증거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은혜이다(요 1:17). 그러므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방법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9,10)고 지시되어 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아 8:7). 그러므로 이 사랑은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참된 의미로 남은 자인 것이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를 따라 남은 자라고 말했을 때 "레이마()"를 사용하였다(롬 11:5).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여 영원한 행복의 생명에 두시려고 사람이 큰 일을 하라고 (big do) 하시는 것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신 일(bid done) 안에 머물라고 요구하신다. 이 다 해 놓으신 큰 일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한 구원의 사업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은혜 곧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는 남은 자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요 15:5). 그뿐 아니라 보호하시는 손 안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과 곤고가 홍수처럼 엄몰해 올 것이며, 이기지 못하여 멸망할 것이다.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선지자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을 때 일곱 번 장소를 옮겨가며 제단을 쌓고 저주하려 했으나 오히려 축복만 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코 홍수가 그들을 엄몰하지 못한 것이다.

발람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이 좌절되자 이스라엘을 이 은혜의 울타리에서 끌어내어 재앙을 받게 하려고 고약한 꾀를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 신 바알브올의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구경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것은 성공하였으며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알브올의 제사 의식을 구경하다가 모압 여인들(여자 제사장들 - 이것은 종교 창녀들이었다.)과 음행하였고 그 여인과 함께 바알브올을 경배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났으며 그 즉시 그들에게 재앙이 이르렀다(민 22:~25; 31:16).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에 구성된 현대의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들임이 틀림이 없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계 12:17)인 것이다.

2.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보존된 자들이 남은 자이다.

창세기 45:7에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이 기록되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그들이 팔았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렸다. 이 두려움에 대하여 요셉은 위로와 안심시키는 말을 들려주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창 45:7,8). 이 말씀 중에 "후손을 두려"라는 말이 "쉐에리트"인데 역시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이 "펠레타"인데 에스라 9:13과 느헤미야 1:2 등에 쓰여졌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죄를 그 죄악대로 갚으면 결코 그 씨를 보존할 수가 없을 것인데 죄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고 남겨 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쓰였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완전히 멸절 될 수밖에 없었으나 여자의 후손의 허락으로 마침내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다. 죄의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한 행복의 영생에 두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영원히 견고케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성취할 일꾼으로써 남은 자손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이 구원의 씨를 보존하시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항상 남은 자를 두셨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 일을 무너뜨리려고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단의 이 노력을 헛되게 하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만일 의인이 그 원수에게 희생이 되도록 버려두는 바 된다면 이는 암흑의 왕의 승리가 될 것이다"(대쟁투 하 497p).

역대의 나타난 마귀의 공격을 몇가지만 살펴보면, ① 노아 때의 홍수 사건 - 이것은 이 지상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켜 구원의 씨를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책동으로 일어난 결과이다.

노아 때에, 온 땅이 패괴하고 강포가 충만하여 죄악이 관영하여 사단의 왕국으로 굳게 서는 것 같이 되자, 사단은 하나님께 이 지구의 운행권(運行權)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나님이 지상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다. 그래서 사단의 요구가 꽤나 정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단의 의도가 노아의 식구들을 없애버리므로 지구의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너지게 하려는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다. 지구의 운행을 사단이 맡으면 지구에는 틀림없이 큰 멸망이 이를 것이다. 창조의 들쭉날 궁창 위에 둔 물이 땅으로 쏟아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사단은 세상 임금으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한편 노아를 통하여 이 놀랍고 두려운 파멸을 예언 경고하게 하여 준비된 방주에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초청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방주에는 노아의 식구만 남았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남은 자를 보존하신 것이다. ②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게 한 사건 - 이것도 역시 구원의 후사를 멸절시키는 사단의 책동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이용하여 모세를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성취시키셨다. ③ 아달라가 다윗 왕의 씨를 다 죽이려는 사건 - 열왕기하 8:16 이하를 읽어 보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의 사적이 기록되었다. 여호사밧은 유다 열왕 중에서 선한 왕이었으나,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온 이스라엘을 바알에게 부속되게 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은 과오를 범하였다. 이 아합의 딸 아달라는 그 어미 이세벨보다 더욱 악랄하여 그 남편 여호람 왕을 찌어 바알을 추종자가 되게 하였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셨음이더라”(왕하 8:18, 19).

그러나 이 악한 왕의 가정에 마침내 재난이 임하였다. 북쪽 이스라엘에 예후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이세벨과 그 아들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일 때에 마침 여호람과 아달라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방문을 왔었다. 그는 그곳에서 예후의 손에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달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왕자를 죽였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보존하지 아니했으면 메시야의 계통은 끊어질번 하였다. 그러나 여호람의 딸 여호세바가 궁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안고 달아나서 성전에 감추었다. 여호세바는 당시의 대 제사장 여호야단의 부인이었고 그래서 속인(俗人)이 드나들 수 없는 성전 깊은 곳에서 갓난아기 왕자를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요아스가 7세 되었을 때에 아달라를 내어쫓고 다윗의 등불은 다시 밝혀지게 되고 구원의 씨는 그 혈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④ 베들레헬의 아기를 죽인 사건 - 사단은 헤롯을 충동하여 베들레헬의 모든 아기를 죽이게 하였다. 물론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킴으로 사단의 계획은 또 좌절되었다. ⑤ 1260년간 대환난 - 이 환난 역시 이 지상에 구원의 후사를 전멸하려는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를 감하셨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마 24:22).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를 남은 자손을 보존하신 것이다. 역사의 최후의 남은 자손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존된 자들이다. 신약 성경에서 이런 뜻으로 쓰여진 말을 굳이 구별하여 찾는다면 “로이포스()”가 있다(계 12:17 등).

3. 스스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기로 선택한 자들이 남은 자이다.

왕상 19:10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독하고 처량한 신세를 하소연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모든 이스라엘이 바알을 택하여 저희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 엘리야는 단호히 하나님 편을 택하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다. 그는 이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종교와 그 신앙을 개혁하고 보존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고난의 편을 선택한 것이다. 이때에 사용된 낱말이 “야타르()”이다. 이러한 엘리야의 경우를 신약성경에 기록하면서 “후포레이포()” (롬 11:3)를 사용하였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한다는 설교를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물러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도 물러가려느냐?” 그 때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요 6:68)라고 대답하여 예수를 선택하여 따르는 일에서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을 표현하였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남은 자는 주의 어떠하심을 맛보아 안 자들이다. 스스로 이 안에 머물기로 굳게 결심한 자들인 것이다.

"남은 자"라는 말에는 이런 복합된 의미가 다 포함된 것이다.

4. 이스라엘의 구원 의식(意識)의 발전에 있어서 남은 자의 의미.

1) 민족적, 집단적 구원 의식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의 각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 개인 개인이 참된 신앙적 체험이 없이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였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와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표현하여 그 집단성을 나타내었다(신 33:29).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되었다고 말하였다(신 7:7, 8).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룬 민족과 집단은 모두 구원 얻은 자요 구원 얻는 자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다. 침례 요한은 그에게 나아오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마 3:9)고 권고하였다. 요한의 이 선포도 역대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남은 자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은 정신이 포함된 말이다. 즉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요건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을 완전히 부인하셨다. 비유 중의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으나 그는 음부의 불꽃 중에서 고통 당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단 구원 사상은 애굽에서 나와 독립된 국가를 건설한 사실로 그 절정에 달하였다. 이 일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생각하였다.

2) 이스라엘의 국가적, 국민적 배도와 개인적 구원 의식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국가가 가장 번영하고 태평한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부터 배도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다. 솔로몬의 결혼 문제와 가장 번영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배도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의 등장으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변모해버렸다(왕상 16:30~33). 이미 말한 것처럼 이때에는 남쪽 유다도 아합의 사위 여호람이 왕이 되어 아합과 같은 정치를 하였으므로 남북의 나라가 다같이 바알을 섬기는 배도에 빠진 것이다(왕하 8:18).

이 때에 엘리야가 일어났고 그는 나만 남았다는 말로 구원의 개인적인 사상을 표현하였다.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였다고 생각했던 민족이 완전히 배도에 빠졌을 때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며, 민족적 집단이 국가를 건설한 것이 구원의 성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확립이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과 그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뜻은 엘리야의 이름에 포함하고 있다.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실을 그의 인격을 표상하는 이름 속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배도와 구원의 개인적인 사상이 싹트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사상을 확립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배도와 구원의 개인적인 사상이 싹트자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사상을 확립하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였다.

남은 자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구원에 완전히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시키는 자들이다. 이러한 남은 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로 그 역사적 상징을 이루었다. 즉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구원의 이중성의 성취를 표상하는 일이 된 것이다.

이러한 남은 자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두 아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주셨다. 한 아들은 "마할살랄하스바스"인데 그 뜻은 "노락이 속하리라"이며 또 하나는 "스알야슈"인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배도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포로가 되어 노락이 속히 임하였으나, 예언된 70년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남았던 자들이 고토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순종하며 그 명령을 기다린 자들이었다.

이런 사실은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함으로 그 뜻이 더욱 분명하여진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하였다(롬 11:2). 그러나 그것은 집단적이 아니요 개인적이다. 비록 민족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선민의 자격에서 떨어져 나갔으나,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자격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특권은 다 없어지고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겨 응하면 그는 남은 자로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롬 9:24).

그리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롬 10:11,12)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놓은 은혜 안에 머무는 자요 그들이 곧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교회가, 이미 말한대로 바벨론화 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이 현대 바벨론에서 나아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무리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들이 남은 자요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자요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것이다(계 12:17).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 자격을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집단적으로 선택하신 일이 없고 어떤 국가를 국가적으로 선택하신 일이 없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에 속하였든지 각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런 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교제(코이노니아)를 나눌 때에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이 교회는 또 하나의 조직적인 생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조직은 그 교회가 처하여 있는 민족과 국가의 사회 조직의 법규를 초월하여 조직을 누릴 수가 없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의 헌법과 단체 설치법에 맞아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제약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국가가 성경의 진

리를 좇아 충성하려는 자들이 함께 모여 조직한 코이노니아의 집단을 용납하지 아니할 때, 그 국가에서 교회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일제 시대의 한국 교회가 그러했다. 일본의 국가 정책에 굴복하지 아니할 때 그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다. 이럴 때 교회가 취할 길은 두 길이었는데 변절하여 국가 정책을 따르는 것과 해산하여 공식적 조직을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더욱 안전하고 건전하게 존속하는 길은 오히려 해산하는 쪽이었다. 이와 같이 해산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 조직된 단체가 없어졌으므로 개인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실이 없어졌는가? 결코 아니다. 아무리 단체가 해산되고 없어졌어도 개인은 하나님 앞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설 수 있으며, 피하여 보존되기도 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그 개인이 남은 자인 것이다.

지금 이북에 교회가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 없겠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자와 구원의 개인성이라는 뜻이 이러한 뜻이다. 엘리야 때에 하나님이 남겨둔 7,000명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다.

이와 같이 어떤 국가 안에 존속하는 한 교회 단체가 국가적 여건 때문에, 그 조직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경적 원칙을 실천하는 일에 고난을 겪고 타협하는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조직된 단체로써의 교회는 변절되는 듯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된 남은 자는 개인적으로 결코 굽힘이 없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토굴 속이나 산골짜기에 하나님의 밀실에서 피할 수가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 찬송하며 나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남은 자는 지도자들의 실수나 변절을 매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다. 집단의 허물을 보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엘리야를 보라. 국가가 배도했다고 그가 낙심하였는가? 지도자가 배도의 주역을 담당했다고 그를 욕하고 갈아치우자고 주장하였는가? 오히려 국가를 배도에서 건지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지 않았는가!

그 날 갈멜산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둔 후 흥분되고 후회에 싸인 이스라엘 민중을 향하여, 온 이스라엘을 거짓 신 바알 숭배로 이끌어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온 자가 바로 아합이니, 아합을 잡아 없애자고 한마디만 선동했다면 아합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큰 비가 내릴 징조를 보고는 아합에게 궁중으로 빨리 돌아가도록 권고하며 비에 앞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합의 마차 앞을 그냥 달려가 궁궐까지 안내하였다.

엘리야의 이런 태도는 마지막 때의 남은 자가 교회와 그 지도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의미의 남은 자인가?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직시하고 남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삶을 성공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못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은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롬 9:27, 28).

제 3 장 남은 자손의 성질

성경에 나타난 역대의 남은 자들의 모습, 즉 최초에 남은 자로 기록된 노아를 비롯하여, 그 성질상 남은 자들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성질을 살펴보면 그 성질의 공통성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은 곧 역사의 종말에 남은 자들의 성질이기도 한다. 이제 그것을 적어보자.

1. 신관(神觀)의 확립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었다(창 6:9). 온 땅에 강포가 가득하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할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신앙으로 확립된 확고한 신관에 근거했던 것이다.

그는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요, 산언덕에서 지었다.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옮길만한 배였다면 몰라도 그렇게 큰 배를 산에서 만든다는 것은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으리라! 그런데 그 일을 노아는 감히 해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였을까? 얼마나 비웃음을 받았을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것이다(히 11:7). 그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는 신관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하였다(벧후 2:5). 즉 방주를 지은 다음 그 안에 들어오는 일이 참된 생명의 길임을 용감히 증거한 것이다.

가만히 눈 감고 그 때의 일을 생각해 보라. 그 조롱하는 무리들의 비양거리는 모습이 선하게 떠오르지 않는가!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고, 그 믿음 위에 굳고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브라함을 보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수 24:2). 우상을 전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장사하여 치부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마음이 충성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느 9:7,8).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의 10대 조부인 셈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452세였는데, 셈은 600세를 살았으니, 아브라함이 148세 될 때까지 살아있었다.

어린 아브라함은 셈 할아버지를 좋아하였고 그를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였다. 그렇게 자라오면서 아브라함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 충성하였다.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트에는 아브라함의 충성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우상의 전각을 가지고 우상 장사를 하였다. 아브라함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옳은 일임을 굳게 믿고 그 아버지에게 자주 이 일을 말하였다. 그러나 데라는 건성으로만 들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막내 아들인데, 데라가 130세 때에 낳은 아들이다(창 11:32~12:4). 그래서 위로 두 아들은 장가들어 살림이 나고 데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왔다. 아버지는 출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전각을 지키며 우상을 팔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혼자 우상의 전각 앞에 있을 때 과연 우상을 사려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난밤에 누가 나의 우상을 훔쳐갔기 때문에 꼭 같은 것을 하나 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한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 우상을 무엇하려고 삼니까?"

"집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그렇다면 왜 우상이 자기를 지키지 못했습니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아주머니와 집을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렸다.

또 한 사람이 남자가 곧 이어 나타나서 어저께 새로 만든 큰 우상을 사겠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왜 사려고 합니까?"

"집에 있던 것이 깨어져서 그렇다네."

"아저씨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이가 꽤나 많지. 왜 묻는가?"

"아저씨, 저 우상은 어저께 만든 갓난 아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아저씨 같이 나이 많은 분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에 그 아저씨는 화를 벌컥 내면서 돌아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돌려보낸 아브라함은 저녁때가 되자 음식을 한 상 차려서 우상의 전각 안에 가지고 갔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의 한 손에 몽둥이를 들려 놓고 다른 손에는 손가락을 들려 놓은 다음에 음식을 그 우상의 입 언저리에 지저분하게 발라 놓았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우상을 부숴 버렸다. 그리고 우상의 전각의 문을 굳게 잠그고, 시침을 때고 지냈다.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아버지는 오자마자 우상의 전각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어찌된 일인가? 그 귀중한 신상들이 산산조각이 나서 뒹굴고 있지 않은가! 데라는 노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게 어찌된 일이나?"

아브라함은 태연한 태도로 아버지 앞에 섰다.

"왜 그렇게 노하셨나요?"

"이 우상들을 왜 다 부수어 버렸느냐?"

"아니요, 아버지, 제가 부수지 않았습시다. 저는 아버지가 우상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한 번도 못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플까 싶어서 음식을 한 상 차려준 것밖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시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저 큰 우상이 혼자 다 먹으려고 저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로 다른 우상을 다 부수어 버린 모양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얘야, 우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으며, 어떻게 움직이며, 몽둥이질을 한단 말이나?"

"아버지, 옳습시다. 그런 우상을 뭇 때문에 경배하고 섬깁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데라는 깨달은 바가 있었고 그 우상의 도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동하여 갔다. 가다가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즐겁게 응하여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롬 4:17) 이심을 확고히 인식하고 순종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무런 의심없이 떠날 수가 있었다(히 11:8).

요셉도 그렇다. 그가 청년의 때에 가장 강한 유혹이 닥쳐왔을 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감찰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의에 편에 굳게 설 수 있었다. 그 여자에 대한 그의 대답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 39:9)였다. 요셉이 얼마나 확실한 신관을 가졌는가를 실증하는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현대의 남은 자도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배우고 흔들림이 없는 신관을 확립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같은 확실한 신관을 가졌더라면 결코 범죄하지 않았을 일에 대하여 자주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는가? 우리의 많은 범죄가 신관의 미확립으로 저질러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가?

이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하여 간단히 연구해 보려고 한다.

1) 성경의 신론(神論)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신 6:4).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하나님 이외의 결코 어떠한 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호 12:5, 사 43:10, 계 7:2, 히 9:14).

하나님의 속성을 일일이 다 살피고 설명할 지면은 없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간단히 적어보려 한다.

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느 9:6).

하나님은 인류에게 눈을 높이 들어 우주 만상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고 요청하신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선언하신다(사 40:26).

이런 숭고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인간에게 증거하고 기념케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므로 제 사 계명 곧 안식일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인격적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확실하고 영원한 고리인 것이다.

② 구속주(救贖主) 이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단 3:15)고 말했을 때 그들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단 3:17)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구원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추호도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풀무 속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시 50:15)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선언하시기를 "나를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1)고 하셨다.

성경의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구원자이시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더욱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모든 인류는 죄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지어진 존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이미 죽어서 심히 매말라 버린 해골들을 죄의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구속자이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함과 경외심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다"(시 34:17,18).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조는 없는데서 있게 하신 것이요 구속은 죽은데서 다시 살게 하신 것이다. 신앙의 선조들, 곧 역대에 남은 자들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롬 4:17)심을 굳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은 자손들도 이러한 확신이 그의 사상과 생활을 확고히 지배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협과 공포 때문에 위축되고 변절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생활의 모든 순간을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능히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③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레 11:44, 뻔진 1:16)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는 칭호를 자주 사용하셨다(사 41:14, 16, 20).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다. 어떻게 구별되었다는 말인가?

첫째, 존재 자체에 있어서 구별된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란 스스로 있는 자 곧 자존자라는 뜻이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라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존재와 구별되시므로 거룩하시다.

둘째,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구속자시요 그 외의 모든 영원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존재하는 피구속자들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면을 표현한 말이다.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인줄 인식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거룩하시다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④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그 개체의 위격을 삼위로 나타내셨다. 삼위일체란 말은 세분 신성의 한 연합을 뜻하는 말이 아니요 한분 하나님의 세 개체적 위격을 뜻하는 말이다.

이 세 위격 곧 삼위는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 어떤 교파의 주장대로 한 개체의 한 하나님 뿐인데 인간의 역사적 시대를 따라 세 번 변화된 위격으로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다. 즉 한 하나님이 구약성경 시대에는 성부의 위격으로,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성자의 위격으로, 그리고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의 위격으로 나타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세 개체가 동시에 현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한 하나님은 동시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중요한 국면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신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의 계시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를 결코 다 알 수 없고(욥 11:7)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욥 37:23).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 경외하도록 하여 인생이 영원히 행복하게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인생에게 계시하셨다. 그 계시하셔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성경의 모든 진리가 계시의 진리이지만 특히 삼위일체 신성은 더욱 계시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식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 진리는 학문적으로는 이해하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경험으로 체험적 인식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논리적 시도는 아주 많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간단히 적고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인 세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삼차원으로 인식되고 공간은 거리, 넓이, 부피로 인식된다. 과거도 완전한 의미로 시간이요, 현재나 미래도 완전한 의미로 시간이다. 또한 거리도 완전한 의미의 공간이며, 넓이와 부피도 그러하다. 그러나 과거는 현재가 아니요 미래가 아니며 현재와 미래도 역시 서로 그러하다. 그러나 그 각각이 완전한 시간인 동시에 그 전체도 완전한 시간이다.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즉 거리는 넓이와 부피가 아니며 넓이와 부피도 서로 그러한 독립성을 지녔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 완전한 공간이며 그 전체도 완전한 공간이다.

이러한 예로 한 하나님의 삼위격을 설명하면 이해를 도울수가 있을 것이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세 위격을 전체로 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포하였다. 사실 공간이라고 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이다. 그러나 이 전체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세 공간의 상태가 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 한 하나님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세 위격의 하나님을 전체로써 한 하나님이신 것이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3:18,19).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위의 성경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라고 권고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아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아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이와 같이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역대의 남은 자들

은 이와 같은 충만한 신관을 확립하고 충성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존절히 생활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 90:11, 12).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가? 삼위일체 신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재(先在)를 믿지 않는다. 선재라는 말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완전한 인격적 개체로 존재하셨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를 믿지 않는 것은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의 내용 중의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가 아들이라고 불렸을 때는 항상 구속적 의미에서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사 9:6)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아기가 되셨고 아들이 되신 것이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빌 2:6~8)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근본은 태초에 상고이며(미 5:2)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히 7:3)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분이시며(요 8:58) 스스로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시다(요 10:18).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존성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의미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다.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삼위일체 신성 중에 가장 이해가 어려운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오해가 가장 많다.

그러나 성령은 성령의 인격적 개체를 분명히 선언한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시다(롬 8:27). 그분은 근심도 하시고(엡 4:30), 사랑도 하신다(롬 15:30). 또한 친히 탄식하시며 말씀하신다(롬 8:26, 계 2:7, 11 등). 그러므로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격적 개체를 지니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성령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셨으므로 어떤 세력으로 이해하려는 사람과 열광주의적 관심 속에 성령이 능력적 사역에만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흐려놓는다. 이것은 물론 사단의 계략들이다. 그래서 성령 신관에 대한 것은 이 시대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다. 이제 특히 성령의 역사와 관련하여 성령 신관에 대한 것을 적어 보려고 한다.

2) 성령의 역사(役事)에 대하여

지금은 성령 주권 시대이다. 온 교회에 대하여 성령은 주권을 행사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요 16:7)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메시야로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 거짓 메시야가 나타났었다.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행 5:36, 37)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그처럼 성령 역사 시대에 사단은 거짓 성령 행세로 교회를 교란시키려고 노력한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중에 인간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집중시킨 것은 인간에게 행하여진 이적들이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적과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한다. 이렇게 때문에 이 시대의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참 성질을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다.

① 성령의 상징적 표현들

성령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불(행 2:2), 바람(요 3:8), 물(요 7:37-39) 등등 그 수를 찾아내면 아주 많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어떤 강한 세력의 형상들이다. 불이나 물이나 바람은 강한 세력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징은 성부와 성자에게도 쓰여졌다. 불(히 12:29), 빛(요일 1:5, 요 8:12), 반석(신 32:4, 고전 10:4) 등등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면 성령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상징이란 그 실체를 한 표현으로 그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때 그 개념의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성령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상징이 사용된 것이다.

② 성령의 역사의 측면들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측면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을 크게 나누면 성령의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역사와 특별한 경우에 나타나는 특별 역사가 있다.

성령의 이 역사가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본질적인 역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이다.

성령께서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하셨다(창 1:2). 그분은 재창조에도 역사하신다(시 104:30). 그런데 재창조란 곧 구속이다.

구속은 성령의 생명의 법에 지배되는 것을 뜻한다(롬 8:2). 그러므로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며(요 3:5), 이렇게 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고후 5:17). 이리하여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요 16:13).

이와 같은 기본적인 역사를 이슬 같은 역사라고 말한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빗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사 26:19). 이 말씀은 장차 있을 부활을 예언한 말씀인데 이때에 주의 빗난 이슬이 땅속에 자는 자들을 일으킬 것을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 부활하는 일에 역사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롬 8:11). 그러나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성령의 이슬 같은 역사에 의해서 죄인은 회개하고 중생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경험에 이르는 것이다(롬 6:3~5).

호세아도 이슬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호 14:5). 이 말씀은 다음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하여진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사 32:15). 성령이 오시면 광야와 밭이 변한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들이 백합화와 백향목 같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기원 9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하였다. 그는 12사도 중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요, 오순절의 그 능력의 역사에 참여한 자이다. 그러나 그의 복음서에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하면서도, 한번도 성령의 기적적 능력의 역사를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요한은 오래 살면서 오순절 이후의 교회의 발전과 함께 이단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부흥 운동임을 보았던 것이다. 그 이단들은 거짓 영의 부흥 운동을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교회가 이런 물결에 휩쓸릴 때, 요한은 성령의 본질적 역사를 밝혀 사람들을 기만에서 구해야 하였다. 그래서 그의 편지서는 영의 성질을 구별하는 방법을 기록하고 그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을 기록하여 성령의 기본 역사를 밝혀놓은 것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곧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과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에 자신을 맡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교회는 그 출발이 바로 이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에 의해서였다. 그때에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이적은 없었으나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는 열정 속에 올바른 진리를 깨달음으로 남은 자손이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혹하는 세대에 처하여 있더라도 성령 신관에 결코 혼란됨이 없이 진리의 정로를 걸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특수 역사는 무엇인가?

기본역사가 보편적이며 초시간적 초역사적이라면 특수 역사는 시간성을 가진 역사(役事)이다.

성령의 이른비 역사와 늦은 비 역사가 바로 특수 역사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원래 불학 무식한 사람들이었다(행 4:13). 이들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 복음을 전하려는 역사적 시점에서 그들의 기별이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인식시킬 방법은 이적적 역사 뿐이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따라 다녔고, 다락방에 모여 회개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로 성령의 기본적 역사 안에 머문 자들을 통하여 이 특별 역사를 행사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 깜짝 놀라 굴복하게 만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얌전하고 선량하게 생활하므로 너무나 평범하고 별 힘이 없는 보통 생활인으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가진 자였다고 하자. 그는 이 힘을 결코 나타내지 않았고 또 나타낼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깡패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타일러 보내려 하였으나 도무지 듣지 않자, 드디어 그의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이 힘의 발휘에 의하여 모든 깡패는 굴복하였고, 그는 승리하였다.

이 이야기를 분석하여 성령의 역사와 대조한다면, 그 힘센 자의 얌전하고, 그가 깡패를 만나 힘을 발휘한 것이 성령의 특수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다.

성령의 이슬 같은 역사는 어느 시대나 어디서나 모든 인간의 심령에 역사하시며 특히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령의 주권적 입장에서 반드시 특별 역사로 능력을 나타내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증거하고 심령을 압도적으로 굴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때 특별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비의 역사이다.

과연 오순절 때에 능력있는 이른비 역사로 그리스도교는 튼튼한 기반을 놓았다.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이러한 비의 역사가 필요한 시점마다 있었다. 종교 개혁이나 웨슬레의 신앙 부흥 운동이나 대 재림 운동이 성령의 비의 역사의 하나들이다.

이제 역사의 종말에 이때까지 내렸던 어떠한 비보다 더 풍성하고 힘찬 비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늦은 비의 역사이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바른 진리를 깨닫는 일과 사람들을 진리대로 올바르게 생활하도록 하는 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와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경의 참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므로 늦은 비 역사도 반드시 이러한 결과를 낳는 역사여야 한다. 즉 남은 자들이 진정으로 성경이 인정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비의 역사는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 있고 그 역사의 결과는 세상을 향하여 또는 바벨론이 된 교회에 대하여 참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편적이며 기본적인 역사는 그 역사를 받는 개개인이 주 안에서 자라고 순결하여지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된 사람을 통하여 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미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거짓 영의 부흥활동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들은 성령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 성령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림교회는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성령의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사업에 의하여 출발된 진리 교회이다. 이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인 것이다.

2. 절대적 신뢰와 순종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으며(창 6:13~22),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였을 때 무조건 순종하여 떠났다(히 11:8).

이러한 신뢰와 순종의 생활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내가 행하나이다"라는 것 외에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었다. 남은 자의 사고(思考)와 행동과 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1) 생활을 위하여 진리를 거슬리지 않았다.

남은 자들은 진리를 거슬리면서 현재의 생활을 평안케 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엘리야를 보라. 그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표표히 살았다. 그의 생활 필수품은 하나님 뿐이었다. 이런 신뢰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로 응답하셨다.

이런 중에서도 엘리야는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를 염려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지 않았는가!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의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슥 3:12). 남은 자는 자기가 비록 심히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비방과 환난을 당하며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고 산업을 까닭 없이 빼앗겨도 기쁘게 당하며(히 10:32~35), 모든 경계권이 박탈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계 13:16~18), 세상의 물질적

생활을 초월하여 새처럼 백합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다(마 6:24~33).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기록하였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꺾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8~10).

2) 평안을 위하여 정치와 타협하지 않는다.

남은 자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요 18:36, 15:18,19).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빌 3:21).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꺾박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버리고 있다(계 12:17).

그러므로 남은 자는 환난과 꺾박 중에 평안할 날이 있을 수 없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꺾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사실 현대의 남은 자로서 재림교인들은 평범한 일상 생활에서도 고난을 당한다. 여행하는 차 안에서 담배 연기의 꺾박은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 또한 시장하여 식당을 찾으면 먹을 만한 것이 과연 있는가? 처처의 확장기를 통하여 들리는 음악과 소리들은 얼마나 두뇌를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면 정치적 세력이 조직적으로 꺾박할 것이다. 마치 아합이 엘리야 때의 남은 자를 꺾박한 것처럼!

이럴 때, 남은 자는 평안을 위하여 정치와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용감하게 박차고,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히 11:24~27). 이것이 남은 자손의 성질인 것이다. 초대 교회의 교부 이크나티우스는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리라"고 외쳤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성경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간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4~10).

이 얼마나 멋진 삶이냐!

3)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못함

남은 자는 그 자신이 진리의 화신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진리였다(요 14:6).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남은 자 된 자들도 그 자신들이 진리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다할지라도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못한다. 오직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생활할 뿐이다(고후 13:8). 그것이 그들의 본능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해도 진리를 떠난 남은 자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생활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환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

리라”(눅 3:13). 이상의 성질들은 남은 자의 자연스런 생활의 결과이다. 남은 자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린다. 이 참된 안식을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고 표현하였다.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아니한 것이다(요 14:27). 이것은 계시록 14:4의 십사만 사천인의 특성과 흡사하다. 이들은 정절이 있고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였는데 스바냐에 남은 자들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휼한 혀가 없다고 하였다.

십사만 사천인은 결국 남은 자들이다. 현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이상과 같은 성질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눅 18:8)고 탄식 하셨다. 우리는 남은 자로서 믿음을 확고히 하는 일에 날마다 성공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궤휼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슌 3:13, 12).

제 4 장 남은 자손의 교리

남은 자손들은 남은 자손이 되게 한 순수한 성경 교리가 있다. 교리가 무엇인가? 간단히 정의하면 교리는 신자의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그 종교의 경전에 근거하여 조직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원칙을 성경에 근거하여 조직적이며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리는 성경 이외의 어떤 근거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교회가 바벨론화 하면서 소위 그리스도교의 교리에 비성경적 요소들이 섞이게 된 것이다. 온 교회가 다 용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진정한 성경의 종교의 교리는 아닌 것이다. 결국 바벨론화한 교회란 혼잡된 교리를 용납하고 주장하는 교회인 것이다.

혼잡된 교리들이 무엇인가? 예언의 신은 영혼 불멸설, 영원 형벌설, 일요일 성수(聖守) 등을 바벨론이 먹인 진노의 포도주라고 지적하였다(TM. 61p).

그러므로 이러한 것에 대한 순수한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베드로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고 말하여 순전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을 말하였다.

재림교회는 남은 자손으로서 황금 같은 순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연구해보려고 한다.

1. 성소

성소는 성경의 중심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중심부는 수도요 수도의 중심부는 왕궁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에 성소 문제를 교리로 취급하여 연구한 역사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이것을 교리로 연구하여 확정한 일이 없다는 말이다.

윌리엄 밀러에 의하여 2,300주야의 의미가 해석되므로 비로소 성소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2,300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단 8:14)는 말씀을 예수의 재림으로 해석하였다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실임을 알게 되면서 성소 문제는 성경의 전 교리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성소에 대한 공방전이다. 사단은 성소를 기어이 파괴하려 하고, 하나님은 성소를 기어이 지키려 하신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선악간의 대쟁투의 종말을 알게 되는 것이다(시 73:16,17).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과 정치를 도해(解)하여 공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소 문제를 알면, 다시 말하여 성소에 들어가면 구속의 역사의 시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사단은 성소 문제를 결코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신약에 성소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데, 이 책을 일곱 의심나는 책에 포함시켜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다시피 하였고, 성소는 유대교의 구약적 제도의 집약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하여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시켜 온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희생을 성소와 관련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소의 여러 가지 기능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희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성소 문제가 1844년 대 재림 운동의 결과로 비로소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남은 자손이 형성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진리가 순수하게 개혁될 수 있었다.

1) 성소의 뜻

성소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곳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다. 그러므로 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성경은 "영화로우신 보좌여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렘 17:12,13) "원시부터 높이 계신 영화로우신 보좌는 우리의 지성소시니이다"(구약 성경)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성소이며, 나아가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소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이 사상은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였으며(요 2:19~21),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과 어린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계 21:22).

그러므로 성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보좌 자체이다. 이것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계시해 주신 것이 지상의 성소인 것이다.

사실은 처음에 지음을 받은 사람은 성소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성소였다(소망 I, 204p, 창 1:26, 27, 시 8:4,5, 고전 3:16, 6:19,20).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므로 성소는 더럽혀지고 오히려 마귀의 전이 되어버렸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이 가득차서 이욕과 탐심이 우글거리는 광경은, 성전이었던 사람이 범죄하므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었다. 인간은 이욕과 탐욕이 지배하는 존재, 강도의 굴혈로 화해버린 것이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와 성소를 더럽힘이니”(민 19:20).

이리하여 이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물건으로 만들어진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성소는 하나님 자신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설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상에 짓도록 명하신 두 성소 곧 모세의 성소와 솔로몬의 성전은 모두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그려 주셨다(출 25:9, 40, 대상 28:11, 12, 19). 그리고 이 성소를 하늘의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히 8:5)라고 말하였다.

2) 성소의 기능

이 세상에 짓도록 허락된 성소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성소만이 아니라 하늘 성소도 기능이 있다. 그런데 세상 성소의 기능을 알면 하늘의 것은 자연히 알게 되어 있다. 그 기능은 의미상으로 꼭 같기 때문이다.

① 언약적 기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히 9:11).

성소는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 세상의 성소는 첫 언약과 관계되었고 하늘의 참 장막 곧 하늘 성소는 새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

첫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이 언약은 세상에 속한 성소를 통하여 이행되어진다.

이 첫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열국의 보배와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한 다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면서 성소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 이제 이 성소를 짓고 성소의 봉사를 통하여 첫 언약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즉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시키고 그렇게 순종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봉사였다.

그런데 이 봉사는 즉 첫 언약의 봉사는 결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해마다 생각나게 하는 봉사였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써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함이라”(히 10:1~4). 그러므로 새 언약이 필요한 것이다. 첫 언약을 통하여 인간이 심히 죄됨을 깊이 인식시키고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는 구세주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 주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첫 언약은 죄를 죄로 지적하여 그 사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언약이다. 이 언약은 구세주가 오셔서 죽어 주시기 전에는 여전히 죄로 남아 있는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9:15)고 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것은 하늘 성소와 관계되어 있다. 즉 예수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는 하늘 성소를 통하여 그 속죄의 효력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사 당신의 흘리신 피로 속죄를 이루심으로 모든 죄인은 영원히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 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3~26).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0~14).

결국 성소의 언약적 기능은 죄인의 죄를 지적하여 고백하게 하는 첫 언약의 기능이 세상에 있는 성소와 관련되어 있고, 죄인의 죄를 온전히 사하여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하는 새 언약의 기능은 하늘의 성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다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주 안에서 영원히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 믿음으로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게 된 것은 새 언약의 기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이다.

② 봉사적 기능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출 25:8), 이스라엘의 성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보이는 증거였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렘 10:10).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하나님의 궁전이다. 왕은 궁전에서 정치를 한다. 옛날의 왕은 삼권(三權)을 홀로 행사하였다. 성경의 하나님도 우주를 통치하심에 있어서 삼권을 행사하신다. 하나님의 왕궁인 성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삼권의 성질을 잘 보여준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약 4:12), "대저 여호와와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사 33:22). 성소의 중심이 법궤는 하나님의 입법을 보여준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비가 두 개 들어있다. 이 계명은 표준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궤의 제도 전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간직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생활을 살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자신이 성소이시다. 그런데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질로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이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요 본능이다.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표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시다(사 43:7, 시 8:5).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려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롬 3:23). 그 후로 범죄한 인류는 표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 그 본래의 상태를 확실히 인식시키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다. 깨뜨려진 인간이, 그 깨뜨러지기 전의 상태, 곧 표준의 상태가 어떠했든지 보여주고 현재 그들이 얼마나 망가진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한량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다시 표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신 것이 법

죄의 의미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영화로우신 보좌(렘 17:12, 14:21)라고 말하였다. 이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이다(시 89:14). 의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체테크()'인데 이것은 표준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의란 말은 주로 '미스파트()'를 썼는데 이것은 표준에 맞도록 처리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 표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표준을, 범죄한 인류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십계명인 것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므로"(시 119:172),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롬 7:12).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요 십계명이 바로 의의 구체적인 표현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곧 십계명인 것이 틀림없지 아니한가?

법계의 뚜껑을 시은좌(施恩座)라고 한다(출 25:22). 그 뚜껑 아래 십계명의 돌비가 있다. 시은좌란 은혜의 보좌라는 뜻이다.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소의 모든 제도와 기구는 하늘의 원형의 모형과 그림자이다(히 8:5). 그러므로 시은좌는 하늘의 은혜의 보좌의(히 4:16) 모형인 것이다. 이 보좌는 영영한 보좌이다(히 1:8). 그러므로 그 보좌의 기초로서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계명이 폐한 바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폐한다면 의가 없어지고 표준이 없어진다. 그래서 우주는 표류하다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나무와 순금과 돌비로 구성된 법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표상하는 원형으로써의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마침내 법계가 표상한 원형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 회복의 방법을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성소의 봉사이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히 9:6)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히 10:11). 그래서 성소의 섬기는 예를 항상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항상 섬기는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매일 드리는 번제, 특히 상번제(常燔祭) (출 29:38~42, 민 28:3).
- (2) 순금 등대의 항상 켜는 불 (레 24:1~4, 출 25:31~40).
- (3) 진설한 떡상(출 30:6~8).
- (4) 항상하는 분향(출 30:6~8).

이 봉사들은 표준에서 멀리 떨어져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도, 얼마나 부숴뜨렸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 놓은 표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봉사들이다.

상번제의 봉사는 죄인의 죄를 항상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직무를 표상한다(히 7:25, 엡 1:7, 부조와 선지자 463p.). 죄로 인해 멸망된 인간은 먼저 그 죄를 처리하므로 구원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수의 속죄가 없이는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성소의 봉사적 기능은 언약적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능이다. 항상하는 봉사가 결코 죄를 속하지 못한다(히 10:11). 그러나 그것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의 속죄를 지적하여 죄인이 예수께 나아가도록 가르쳐 준다. 그래서 첫 언약은 죄인이 죄인된 사실을 지적해 주고 새 언약은 죄인이 용서받아 의인된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 불을 밝혀 두는 순금 등대는 용서받은 죄인 곧 속죄로 의인된 사람들을 실속함이 없는 빛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계 4:5, 요 16:13, 부조와 선지자 457p.).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의 길, 빛의 길로 행할 수가 없다.

이처럼 빛의 생활을 사는 의인들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상징

하는 것이 진실한 떡상이다(마 5:6, 요 6:48~51,35, 부조와 선지자 465p.). 이것은 곧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라"(벧전 4:11)는 권면을 이루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사르는 분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사업,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히 7:25, 롬 8:33,34, 부조와 선지자 457,463,464p.).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 은혜는 죄인을 넉넉히 표준에 이르게 하는 은혜이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1,2).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고 말한다(엡 2:8).

이 봉사를 감사함으로 받은 사람은 이 무진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특권을 가졌다. 하나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시 16:3)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 사람이 표준에 온전히 일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히 받아 표준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이 지성소 봉사, 곧 매년의 봉사이다.

이 때에 사람은 법궤로 상징된 표준과 비교된다. 베푸시는 은혜를 항상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은혜로 인하여 이미 넉넉히 표준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표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자들이거나, 이 은혜를 가볍게 취급한 자들이다. 그들이 무시하거나 가볍게 취급해도 별 상관은 없다. 그러나 결과는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달아보니 부족한 것이다(단 5:27). 이런 판정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이 게을러서 은혜를 은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굳은 분이라고 비난한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마 25:34,25)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명백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판정과 함께 영원한 멸절이 선고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적인 봉사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렇더라도 지성소 봉사는 표준에 이미 이른 사람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모든 봉사와 성소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되므로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이 이 표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히 10:11~14).

예수 그리스도는 첫 언약의 성소가 뜻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성취시키신 참된 원형이시다. 법궤가 표상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표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준에 이르는 것이다. 그리고 항상하는 봉사는 이미 설명한대로 예수께서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봉사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름인데 이것은 곧 성소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즉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성소에 거하신 것을 성취시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이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성취된다. 그리하여 그들도 성전이 된 것이다(고전 3:16, 6:19). 다시 말하면 표준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요 1:14),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시다(고전 1:30).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진다(골 2:9,10). 처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으나(창 1:26,27, 시 8:5) 천사보다 조금 못한 자였다(시 8: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표준에 이른 사람들은 신성에 참여하여(벧후 1:4),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며(골 2:9,10), 하나님(神)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되므로(요 10:35)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과 같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된다(실물교훈 161p., 히 1:4, 2:11,12).

성소의 봉사적 기능이 가르쳐 주는 궁극은 이상과 같은 것이다.

3) 하늘 성소

이미 여러 번 말한 대로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와 관련되어 맺어진 언약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참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사 당신의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 하신다.

그런데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하여는 성경에 그 시기가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된 바로 그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단 8:14)는 말씀이다. 이 예언은 윌리엄 밀러에 의하여 비로소 해석되었다.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것은 매년의 봉사 곧 지성소 봉사를 의미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2,300주야 후에 정결하여질 성소는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상 1일은 실제로는 1년이기 때문에(겔 4:6) 2,300주야는 2,300년이 되기 때문이다. 밀러가 이 성경절을 해석할 때에도 이미 이 지상에는 성전이 없었다. 그렇다면 여기 정결해져야 할 성소는 무엇인가? 그래서 밀러는 성소를 이 지구라고 해석하고 정결하여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 지구가 정결하여지고 신천 신지가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다. 그래서 2,300주야의 시작이 언제인 것을 알면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너무 흥분하여,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2,300주야의 시작점을 찾았다.

드디어 그는 다니엘서 9:24에서 그 실마리를 찾았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단 9:24,26)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밀러는 예루살렘 중건 영이 났을 때가 언제인가를 역사를 통하여 찾아내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7년(스 7:7)인데 BC 457년이였다.

물론 고레스와 다리오의 중건령이 있었으나, 유대인에게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에스라에게 자치권을 주어 예루살렘을 정비하게 했을 때가 BC 457년이였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여질 때가 AD 1844년이라고 해석하고 그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결론이 잘못된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2,300주야의 예언은 그 전체가 하늘 성소와 관계된 것이다.

70주일의 끝이 기원 34년인데 이때에 스테반이 순교를 당하였다. 그때에 스테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행 7:56). 이것은 하늘 성소의 봉사가 시작된 것을 가르쳐주는 계기이다.

첫 장막이 있는 동안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히 9:8). 그런데 70주일은 유대 민족을 위한 특별한 기간이었고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하늘 성소 봉사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스테반이 순교할 때가 바로 70주일이 끝나는 때였고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봉사하시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일로 모든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도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에 참가하여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1,22)고 한 의인 것이다.

그리고 이 황금 같은 은혜의 기간이 1844년까지 계속되는 동안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성경 진리의 기별들이 순수성에서 떠나서 바벨론화 되어, 사람을 살릴 기별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기별로 타락하게 되었다. 바벨론화한 교회가 만민들을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계 14:8).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된 대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 성소를 주목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남은 자손을 불러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1844년에 시작된 하늘 지성소 봉사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는 심판을 시작하며 또 한번 바벨론에서의 구속이 시작된 사실을 가르쳐주는 봉사인 것이다. 즉 구원의 이중성을 확실히 하여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참여한 마지막 의로운 백성을 지적해내는 봉사인 것이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심판을 받아 의롭다고 선언된 백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성소 문제를 연구함으로 더욱 밝은 빛을 받게 되었다. 이제 저들은 중대 위기로 확인된 1844년이 2,300일의 끝이 된다는 신념은 틀린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사람이 과거 1,800년 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었던 희망과 은혜의 문이 닫힌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한 다른 문이 열리어 죄를 사라는 일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한가지 봉사가 마쳐진 것은 곧 다른 편 봉사를 행하기 위함일 뿐이다.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를 통한 '열린 문'은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본즉 계시록 중의 현대 교회에서 부치신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계 3:7,8) 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의 중보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속죄의 데 사업을 행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뿐이니 이 봉사를 밝히 가르치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의 중보하시는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것이다(대쟁투 합본 478p).

이리하여 이 빛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서 나아온 자들이 개인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유지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믿음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 법궤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이르렀는데(대쟁투 합본 481p). 이것은 하나님의 외에 표준에 이르러 영광으로 영광의 이른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요 참된 라오디게아다.

하늘 성소의 봉사는 구원이 완성되고 의가 확정된 것을 확인하는 봉사이요 이 사실을 2,300

주야를 깨달음으로 알게 된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요 16:10)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14).

이상이 하늘 성소 곧 새 언약의 성소와 그 봉사의 의미요, 그 결과는 남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로 화하여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훈인 것이다.

2. 안식일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엿새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창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에 쉬시므로 그 날을 복 주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날이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쉬면 그것이 안식이 되는 줄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쉬어도 안식이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한번 쉬어보라, 그 쉽이 참된 쉽이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간 존재 자체를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하셨고(마 11:28), 예레미야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렘 6:14)라고 말하였다. 평강과 안식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없다. 그러므로 창조 주일의 제 칠일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사 40:29,30). 하나님은 피곤하여 안식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안식하시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막 2:27,28).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람이 쉬는 날은 안식일이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엮매는 날이 아니고 그 날이야 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들만이, 그 안식에 참여한 증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히 4:10). 사람들은 그 창조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겸손히 인정할 때 그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는 표징이 된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폐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결국 안식일을 폐하거나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온 세계에 이 반역이 가득하고 그러므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교회가 바벨론이 되어버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기별을 통하여 바벨론에서 나아오게 하고 역사의 종말에 남은 자손을 이루게 하신 것이다. 남은 자는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주이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구속주이심을 믿는 자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안식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결코 안식일은 폐하여질 수

없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임이 폐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또 그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안식일은 이 우주에서 영원할 것이며 그 의미도 영원할 것이다.

1) 안식일은 영원한 기념일임.

그러므로 안식일은 다음과 같은 기념적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준다.

①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출 20:8~11).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라는 관계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관계인 것처럼 안식일은 영원한 기념일이다.

②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이다(신 5:15).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여내신 것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이미 말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낸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되는 것이다.

③ 안식일은 성화의 기념일이다(겔 20:12).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사실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히 2:11, 10:14). 이 거룩하게 된 모든 성도들은 그 거룩하게 함을 입은 기념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은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다.

④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실의 기념일이다(겔 20:20).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 곧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일이며 결국은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영을(고후 11:4)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단언하신다.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겔 22:26).

2) 안식일의 역사적 일치성

안식일이 제칠일이라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제칠일은 오늘날 요일로는 토요일에 해당된다.

안식일이라는 히브리어는 '샤바트()'인데 이 말은 물론 쉰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낱말의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요일 이름으로 쓰여졌다. 고대 유대인에게는 요일 이름이 없었다. 요일 이름으로는 다만 샤바트 뿐이었다. 그래서 다른 날들은 샤바트 중심으로 계산하였다. 제칠일은 샤바트, 그리고 샤바트의 첫째날, 샤바트의 둘째날... 이런 식으로 요일을 세었다. 그리하여 샤바트는 제칠일의 요일 이름이 되었다

헬라어나, 라틴어, 영어나, 이런 언어로는 샤바트를 그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발음을 그대로 적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사바타(σαββατα), 영어로는 새벳(Sabbath)이다. 우리말로는 안식일이라고 번역하여 평안히 쉬는 날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쉬는 날이면 안식일이라는 그릇된 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일요일이요, 회교인의 안식일은 금요일이라는 표현은 마치 유대인의

일요일은 토요일이요, 그리스도인의 일요일은 일요일이요, 회교인의 일요일은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있을 수 없다.

안식일 곧 사바트라고 하면 그것은 으레 제칠일을 고정적으로 가리키는 날인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물기를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 토요일이 창조주일의 제칠일과 동일한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냐고 묻는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성경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대답해주고 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다.

출애굽기 5:4,5에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라는 말의 "쉬게 한다"는 말이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게으르다고 책망하면서 오히려 더 고된 노역, 곧 결코 쉴 틈이 없는 노역을 명했던 것이다.

그후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다.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 주신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나가 내리지 않은 그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그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 않은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번역하심도 없다(말 3:6, 약 1:17). 그렇기 때문에 태초 창조시에 제칠일은 모세 때의 제칠일과 동일한 날일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하루는 사람들의 천년이나 칠천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중 제 사 계명을 보면 창조 때의 하루나 모세 때의 하루가 완전히 동일한 기간 곧 지구의 한번 자전 기간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제칠일 안식일은 창조 때의 제칠일 안식일과 날짜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3) 안식일의 지역적 시간차 문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시간차가 있어 동시에 안식일을 맞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안식일은 오늘날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있는 각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레 23:31)고 하셨다. 이 처소는 일차적으로 한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였다(신 23:64).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 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있는 각 처소에서 지키라고 한 말은 동일 시간의 지역 내에서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그 하나님이, 온 세계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된 이스라엘에게 너희 있는 각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온 세계가 동 시각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경도 15. 마다 1시간씩 시차가 생긴다. 그러므로 경도를 따라 해 지는 시간은 사실상 동일하다. 한국에서 금요일 6시에 해가 진다면 역시 미국에서도 금요일 6시에 해가 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해가 지는 같은 시간에 미국에서도 해가 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면 미국에서도 저녁 6시에 해가 진다는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 너희가 거쳐하는 각 처소에

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해가 지는 것이 날을 세는 기준으로 삼은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두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안식일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나 여기서는 이쯤으로 줄이기로 하고 책 끝에 성경의 안식일 소고를 따로 첨부하였으니 자세히 읽고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의 중심 문제이다.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회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최대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그런만치 재림에 대한 교리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재림 문제 전반에 대한 것을 다 적는다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모든 것을 취급할 수는 없고, 몇가지 문제만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재림으로 구속 사업이 완성됨.

인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허락을 발표하셨다. 이 허락 속에는 구속 사업의 완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즉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다(창 3:15).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이 먼저 기록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여자의 후손이(갈 4:4) 재림하시므로 이 세계를 온전히 구속하시고 죄의 장본인인 사단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을 뜻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속이 틀림없이 완성될 사실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것을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성경은 창세기 3:15에서 시작하여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만도 380회나 기록하여 매 25절마다 한번씩 이야기하고 있다. 왜 그런가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므로 구속 사업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한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일이 끝나버렸다면, 그의 고난의 보람이 어디 있는가? 그가 수고한 결과를 보고 만족히 여길 일이(사 53:11) 어디 있는가?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인류는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고통과 사망에 시달리고 있다면, 예수의 구속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히 2:8,9) 볼 뿐이다.

이런 상태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이르러 올 것인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9).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된 일이며, 예수께서 구주로 탄생하신 일은 복된 소식이요, 그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죽는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가난하고 초라하게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내 세우며, 몸은 죽으나 영혼이 영생한다고 주장한다. 영혼이 천당에 가서 영원 복락을 누린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믿으며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한 모든 인간적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다(딤후 2:13).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당한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벗어버리고 영원한 영광이 크고 중한 것을 이루는 때가 바로 그 때이기 때문이다(고후 4:16, 롬 8:18~25).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린다. 그래서 그날 재림의 때에 우리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사 25:9)고 외칠 것이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사 25:8).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는 재림하신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그러나 예수 믿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긴긴 은혜의 기간 동안 은혜 받기를 거절하였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벧후 3:8,9) 기다리셨으나 이 기다림을 계속 무시한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맛볼 수밖에 없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6~9).

이리하여 마침내 모든 악과 악의 세력은 멸절되고 만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왕국이 성립되고 성도들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이다(말 4:1, 시 37:9,10, 계 21:5, 마 19:28, 단 7:18, 2:44). 이것이 재림의 목적이다.

2)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몸

이 문제는 예수께서 영으로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또 초림하실 때처럼 갓난 아이로 태어나신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예수께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행 1:11).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셨는가?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9).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올라가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보이지 않게 올라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올라가서 시작하여 한참 동안 보이다가 마침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한 것을 뜻하는 말씀이다.

왜 그런고 하면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의 "본"이라는 말은 데아오마이()'로써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광경을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보리라고(마 24:30) 말씀하셨고 각 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찢은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계 1:7).

흔히 사람들은 여기 본다는 것을 영의 사람들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주장한다(엡 1:18). 그러나 여기에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본다고 하였으니 그들이 악인들이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주의 재림을 기뻐하며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사 25:9). 그렇다면 악인들이 영의 눈으로 본다는 말인가? 또한 저를 찢은 자들도 본다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자들이 볼 것이며 가시 면류관을 씌운 자들이 볼 것이며 창으로 찢은 자도 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찢은 자들이라고 복수(複數)를 썼다고 실체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우긴다. 왜냐하면 예수를 찢은 자는 창으로 옆구리를 찢은 한 사람 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이미 쓴대로 못박은 자, 가시관을 씌운자들은 찢은 자가 아닐까? 또한 예수께서는 가야바에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결정한 당시의 당국자들도 찢은 자 중에 포함될 것을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히는 일에 가담한 모든 실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그들이 이미 다 죽고 없는데 어떻게 본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 때문에, 예수님을 못박게 한 당시에 거기 참예한 자들이 예수의 재림을 볼 수 없으니 그 말씀들이 상징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부활하는 한 무리가 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단 12:2). 이 수욕을 받는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부활하여 예수의 재림하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영광이 불꽃에 사루어질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를 찢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있는 모든 자들, 곧 구원받을 의인이나, 멸망 받을 악인이나, 또 특별한 부활로 일으키심을 받은 모든 자들, 영생을 얻을 자나 수욕을 받을 자나 다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 때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은 통곡하며 볼 것이고(마 24:30) 구원받을 자들은 기뻐하며 볼 것이다(사 25:9).

예수께서는 부활하시며 승천하셨다. 그는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빌 3:21).

신령한 몸으로 어떠한 몸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런 구체적인 묘사나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아는 일이 쉬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성경을 잘 연구하면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그의 겔옷과 속옷을 모두 군병들이 나누어 가지고 갔다(요 19:23,24). 그러니 예수님은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흔히 성화(聖畵)에서 보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국부에 천을 두른 모습이지만 그것은 화가들이 그렇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사지낼 때에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다(요 19:40). 그런데 그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을 때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요 20:6,7)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아오셨을까? 히브리서의 기록을 보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히 2:9)라고 말하였다. 예수

께서 부활하셨을 때, 즉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서 부활로 나아오셨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 쓰고 나아오신 것이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으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본 제자들이 벌거벗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것인데 이 옷은 세상의 옷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의 실제적인 면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은(마 17:2) 재림하실 때의 광경이다(벧후 1:16~18).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님을 이것보다 더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있을까? 베드로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벧후 1:16)고 말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친히 본 자들이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요 변화하신 모습인 것이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마 17:2).

예수님은 이런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고 이런 몸으로 승천하셨으며 이 몸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이상의 이야기로 명백하여졌다. 그러나 몇마디 더 적어보자. 변화산에서의 장면이 재림의 장면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마 17:1~4). 분명히 세 제자는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후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마 17:5)났다. 이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사도행전 1:9의 장면이 바로 이러한 장면이다. 처음에는 분명히 보였으나 마침내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와 그 순서가 바뀌어진 상태로 내려오실 것이다. 처음에는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다가 지상으로 가까이 오시면서 각인의 눈이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 즉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도 감람산에 오실 것이다(슥 14:4). 이 모든 것이 올라가심을 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니라"(행 1:3).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행 10:40,41).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영의 눈이 뜨인 사람에게만 보였다고 말한다. 얼핏 생각하면 그럴 듯 하게 들린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훈과 자비가 그렇게 한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부활하신 몸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공포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고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이 영광의 주님을 보고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고 통곡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계 6:16)고 부르짖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악인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광채에 의하여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18에 기록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죄있는 육신이 모양은(롬 8:3) 죽으시고(빌 2:7,8) 불멸하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문장을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셨다는 뜻이다. 즉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에 의하여(by Spirit) 부활함을 받았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을 뒷받침하는 성경절은 많이 있다(롬 8:11).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그 문장의 앞부분이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라고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수의 육체가 죽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육체에 의하여(by flesh)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인가? 만일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라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도 육체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여기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어 봐야 한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이런 뜻으로 말한 곳이 여러 곳이다. 즉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였으나 하나님을 살리셨다는 표현이다(행 2:23,24, 3:15, 4:10, 5:30, 10:39,40). 이것을 설명하면 육체 즉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 곧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뜻이다.

육체는 죄인을 가리키는 뜻으로 성경에 자주 쓰였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18로 예수님의 영으로 부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는 못자국을 확인시키셨고(요 20:27,28), 음식을 잡수셨으며(눅 24:41),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9) 확인시키셨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승천하셨으며 또 그 몸으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다. 죽었던 자는 부활로 변화될 것이며,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는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3) 재림의 시기

예수께서는 재림의 날과 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마 24:36).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를 말씀해 주시므로 그 날이 가까이 이른 것은 알게 하셨다.

그런데 재림의 시기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지나쳐버린다. 무엇인가 하면, 재림의 시기 재림의 징조라는 말들은 모두 역사성을 지닌 역사적 개념들이며, 그것은 인간의 한 평생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 말하고 그 징조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때에 그들의 생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단언하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그들은 몰랐으며, 다만 역사의 종말에 재림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역사가 종결될 것을 믿었었다. 그런데 그들은 재림이 있기 전에 모두 잠들었다.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는 세계의 역사적 진행에 따라 그 때가 되면 징조가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 재림하실 것이지만,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역사적 재림의 날까지 죽

지 않고 살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재림의 시기가 그의 현재적 생활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재림의 날이기 때문에 재림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가 그 재림을 살아서 맞이하지 못하는 한 재림의 시기가 그 개인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가 재림의 날에,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를 연구함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으로써 재림의 시기와 개인적 문제으로써 재림을 맞는 것을 구별하여 연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해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재림의 시기 문제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역사적인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였으므로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행 1:7). 그런데 그 시기를 자꾸 알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침입하는 것이다.

흔히 재림의 역사적 시간을 알고 애쓰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1~5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빛의 아들들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역사적 시간을 안다는 뜻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히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살전 5:1,2)고 말하여, 때와 기한을 분명하게 알 수 없음으로 암시했다. 다만 빛의 아들들에게 도적 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했을 뿐이다.

이 말은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마 24:43)는 말씀의 해석이다. 즉 낮에 항상 깨어 있는 것과 같이, 주의 날을 위하여 깨어 있는 자에게는 주께서 어느 시간에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역사적 시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삼는 것은 지나친 일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로부터 나타난 연대를 계산하여 기원전 4004년과 기원후 2000년을 더하여 6000년이 될 때가 재림의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지런히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 곳이 없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연대는 한 사람의 이름도 빠지지 않고 다 적은 족보의 연대가 아님을 보게될 때, 그 연대를 더하여 구약이 몇 년 신약이 몇 년하는 식의 계산은 옳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창세기 11장에 없는 '가이난'이 더 들어있다. 그러므로 창세기 11장의 나이 연대를 보태어 계산한 연대는 누가복음 3장에 의하여 정확하지 않음을 지적 당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계산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말라고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재림의 시기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가장 성경적 태도이며 믿음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면 개인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과 같다.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재림의 시기 문제는 주로 역사적 시기 문제를 취급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개인의 생명성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다.

역사적 재림의 시기야 언제이든지 간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가 죽는 순간이 사실상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 시간을 정확히 알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명이 언제 끝나도 재림의 아침에 부활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은 재림의 징조나 종말론을 연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이

것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구되어야 하지만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알리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침입하는 일임을 기억하는 일도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날에 주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인격 종말론(人格 終末論)

이미 충분히 말해진 것으로 생각되나 인격 종말론에 대하여 잠깐 말하려고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이시다(히 1:2). 예수께서 오셔서 사신 것은 그 분이 바로 천국의 참 모습을 증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같은 인격을 이루면 이 사람은 종말인(終末人)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 이후에 또 다른 구원 얻을 표준되는 인격이 제시된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다(고전 15:45).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보다 2000년 가까운 후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닮아야 할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먼저 살고 간 사람들도 그들이 닮아야 할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역사에 살고 간 누구든지 닮아야 할 완성된 인격으로서의 유일하신 분이시며 최후의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인이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같은 인격이 된 사람은 재림을 맞이하기에 넉넉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인격을 이루므로 언제든지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일을 인격 종말론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나, 나는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 안에서 이미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하였고(골 2:12),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미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이라고 하였으며(엡 1:20, 2:5,6), 하늘에 이른 자들이며(히 12:22,23),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의 충만을 이룬 사람들이라고(골 2:9,10)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아직 아담이 죽기 이전에 이미 종말인으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였으며(창 5:21~24, 히 11:5),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하였고(왕하 2:11), 모세는 부활하여 승천하였다(마 17:3, 유 9). 이 사람들은 모두 종말인이요 사실상으로 재림을 맞이한 자들이다. 그래서 변화산 상에 재림의 광경을 보여 주셨을 때에 재림을 맞이한 사람의 대표자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셨다(엡 4:8). 이들도 이미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인 것이다.

아직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개인적으로 종말인의 인격을 이룬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재림을 맞이한 상태에 이른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 가까이 사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주 안에서 종말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그는 이 땅에 살아도 실상은 하늘에 있는 자이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은 자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준비되고 있는가?

4. 인간론(人間論)

성경의 인간론은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명백한 선언을 대 전제로 하여, 그 사람이 범죄하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고 단언한다(창 1:26,27, 고전 15:22).

그래서 성경의 인간론은, 범죄한 인간이 자기의 범죄한 상태를 솔직히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처음 창조 때의 영광스러운 형상보다 더욱 영화롭게 변화되어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명백한 인간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영혼 불멸설 때문이다. 사람의 구조를 이원화(二元化) 시켜서 육체와 영혼을 구별하고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불멸이라는 사상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양 주장하는 것 때문이라는 말이다.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1)인간의 구조

창세기 2:7은 창조될 때 인간의 구조가 어떠함을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몸과 생기가 합하여 생령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생기가 무엇인가? 영혼 불멸론 자들은 이것을 영혼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이다. 그러나 성경은 생기라고 말하였다. 생기는 살라는 기운이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이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곧 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다.

생기라는 말은 '니샤마()'인데 다른 곳에서는 '루악()'이 쓰였다. 이것은 모두 바람, 호흡 등을 가리키는 뜻으로 산 동물들의 숨쉬는 생명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그의 호흡(니샤마)은 코에 있나니"(사 2:22) 라고 말하여 사람의 생명 작용은 호흡으로 계속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구약성경에 호흡이라고 번역된 말은 하나의 인격적 독립체로 생각하여 불멸하는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해골의 골짜기에 대한 계시가 있다. 그 마른 뼈들이 다 연합하여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겔 37:9). 여기의 생기는 '루악'이다. 그리고 이 루악은 지옥이나 천당에 있다가 죽은 사람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방에서부터 왔다. 만일 생기가 영혼이라면 죽은 자의 영혼은 땅 사방에 흩어져 돌아다니는 말인가? 여기에 기록된 사건이 계시의 사건인 만큼 하나의 상징적이 사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기가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게 하는 생명의 기운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악이나 니샤마가 많은 경우에 생명이라고 번역되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조는 독립된 몇가지 생명적 인격체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과 그 형상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살리는 기운이 합쳐져서 생명의 작용을 하는 산 인격체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생기가 없는 몸은 하나의 흙이요, 그 흙인 몸을 떠난 생기는 다만 하나님의 살리시는 능력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호흡의 능력 곧 생기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몸은 그 취하였던 흙으로 돌아가고(전 12:7) 이 둘이 합해서 이루어졌던 생명 작용을 하는 인격체로서의 사람은 소멸되는 것이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시 146:4).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 것도 모른다. 몸은 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것도 모를지라도 영혼은 살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미 연구한대로 영혼이 인간의 몸을 떠나 별개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각(知覺)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그것도 아무 것도 모른다. 아니, 영혼이라는 개체가 따로 없다.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욥 14:21).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 것도 모르며"(전 9:5)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루악)이 있어서 이의 죽음 같이 저도 죽으니 사라이 짐승보다 뛰어난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루악)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루악)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 3:18~22).

이상의 모든 말씀들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으면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씀들이나 어떤 사람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라고 주신 기별인데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주장이 옳은 줄로 생각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치 사람의 혼은 하늘로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이여 그것을 누가 안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다.

성경은 범죄한 영혼이 죽는다고 분명히 말한다(겔 18:4). 몸을 떠난 영혼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다. 이런 경우 영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혼은 살아 활동하는 즉 생명 작용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산 영혼(고전 15:45)은 산 사람이요 죽은 영혼(겔 18:4)은 죽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영혼은 피를 흘리고 멸하는 바 되는 존재인 것이다(겔 22:27).

성경에 기록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한다(살전 5:23)는 말은 사람의 삼분설(三分說)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 활동하는 사람 전체 곧 전인(全人)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논리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상한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는 말씀으로 영혼이 떠나가면 몸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영혼이라고 번역된 말은 '프뉴마(πνεύμα)'로 호흡, 생명, 생기라는 뜻이다. 즉 호흡, 생명, 생기 없는 몸이 죽는 것이라는 당연한 말씀인 것이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마 10:28)라는 말씀으로 영혼은 안 죽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을 읽으면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한다고 말씀하셔서 영혼도 멸절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음은 나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성경에 영혼에 대한 표현들도 많은 경우에 그와 같은 표현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그 사람 전체로서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며, 그 사람 전체로서 온전히 멸망받는 것이다.

기독교계에 있는 영혼론은 대체로 세 가지가 있는데 영혼 선재설,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

설이다. 영혼 선재설은 말 그대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영혼이 먼저 있다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런데 선재한 영혼은 죄의 영혼이냐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설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 영혼 창조설은 어린 아이가 잉태될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영혼을 창조한다는 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으므로 논리상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혼 유전설인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설이다. 이 학설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러면 예수의 영혼도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면 예수도 죄인이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영혼은 유전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재설이나 창조설은 비성경적인 엉터리이다. 그리고 영혼 유전설도 영혼이 따로 존재하는 개체라는 가정을 하고 말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성경은 영혼이란 사람 자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유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인데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히 7:10). 그러므로 레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육된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생육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영혼 유전이란 옳은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영혼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님은 아담과 상관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탄생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바른 뜻이며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이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 곧 그의 전인(全人)으로서의 영혼에 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을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줄저(拙著) 구속의 과학의 중생편을 자세히 읽어보기 바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에 성경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방황하지 말 것이다.

인간은 그 인격적 개체로서 전인(全人)이지 어떤 독립된 부분들로 조합된 존재가 아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은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여러 기능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한 전인으로써 창조된 것이다.

2) 영(靈) 육(肉)이라는 말

성경에는 육과 영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들은 모두 몇 가지씩 복합된 뜻을 가지고 있다. 영은 우선 천사나 마귀나 이 지구상의 물질적 구조로 되지 아니하며 현세적 인간의 오관에 감각되지 아니한 인격적 실재(實在)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다(히 1:14, 엡 6:12). 또한 하나님도 영이라고 말했다(요 4:24). 다음으로는 호흡, 바람, 생명 등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문제들은 이해가 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 존재의 국면과 관련될 때 어려워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영이라고 말한다(롬 8:9). 이런 경우에 영이란 무엇인가? 또한 육도 사람들의 물질적 구조인 신체 조직과 그 기관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이해한다. 그런데 성경이 육, 육체, 혈육이라는 말을 썼을 때 죄와 관련되어 쓰여진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경우 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쉽게 대답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유 19). 그런즉 성령 없이 현세적 생명만으로 살다가 죽는 자들이 육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범죄하므로 육체가 된 자들이다(창 6:3, 구역).

이 말씀은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 존재였음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범죄하자 성령은 떠나고 육체 곧 육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범죄한 모든 인간, 곧 아담의 모든 후손은 육체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

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전 15:50).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시어 성령이 충만하신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마침내 구속을 이루시므로, 육에 속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태초의 창조된 사람처럼 영에 속한 자 곧 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 8:5~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영이라고 말했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와 도무지 상관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마치 영이 어떤 개인의 인격을 떠나 개체적으로 있는 인간의 한 구성부분이라고 해석한다면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다.

영이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격체를 가리키고 그런 사람의 혼이란 이 인격체가 나타내는 모든 활동 지, 정, 의의 모든 활동을 뜻하며 몸이란 그 사람의 신체 전부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전하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전인을 잘 지키라는 뜻인 것이다.

육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성령이 없는 죄의 지배를 받는 인격체를 가리키고 그런 사람의 혼은 그 인격체가 나타내는 지, 정, 의의 모든 활동이며, 그의 몸은 그 사람의 신체 전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을 이해하면 영혼 불멸 문제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가지 부연할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을 그 전체로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멸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즉 주 안에서 영생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전인적 인격체를 떠난 어떤 개체적인 존재로써 영혼 불멸이란 사단의 속임수요 강신술의 길을 터놓은 위험 천만한 사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그 전 인격체로서의 전인이 주 안에서 영원히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제 5 장 남은 자손의 역할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행을 따라 매 시대에 항상 남은 자를 보존하신 것은 그들이 구원의 역사에 감당할 역할이 있고 독특한 위치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히브리 11장에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계속 적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

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 11:39,40)고 하였다. 남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곳의 남은 자는 역사의 종말에 남은 자들이다. 역사의 종말에서 뿐만 아니라 매 시대에 남은 자들이 없었더라면 구속의 사업은 계속되어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신실한 무리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집단적으로 배도하게 하고, 또 강한 핍박을 일으켜 남은 자를 멸절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안에 머물러 있었던 남은 자는 안전하였고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제 그 역할을 간단히 적어보려고 한다.

1.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한 보관

하나님께서서는 영생하는 말씀(요 6:67)을 이 세상에 증거하시고 보관하여,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능히 듣고 읽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명하여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관하게 하셨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는 특권을 받게 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의 나은 점이라고 말하였다(롬 3:1,2).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순전하게, 유실됨이 없이 보존하는 일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일에는 더욱 실패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 잡혀갔다. 즉 바벨론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 고토로 돌아와서 말씀을 순수하게 깨닫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들은 단을 만들고 학사 에스라가 율법 책을 읽고 백성으로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에 온 백성이 듣고 깨닫고 다 울었다(느 8:8).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느 8:12).

그들이 말씀을 순수하고 올바르게 깨달았을 때 회개하였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후로 남은 자손의 지도자들은 흩어진 말씀의 기록들을 찾아 모아서 한데 묶고 보관하는 큰 일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전서를 편집하였고 지금까지 보관되어 왔다. 즉 기원전 400년경에 오늘날의 구약전서와 꼭 같은 구약전서가 한데 묶여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고 보관하고 계속 전하여 가게 하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말씀을 가진 것을 큰 특권으로 여기되,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여겨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순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탈무트이나 미쉬나 등으로 순전한 말씀을 많이 흐리게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인간의 유전의 말로 바꾸어 놓았다(마 15:3). 그래서 마침내 이 놀라운 특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옮겨지게 되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엡 3:10)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마 13:52).

교회는 오랫동안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오면서 사단의 공작이 스며들어 마침내 순수한 말씀은 철학화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전락하면서 순전한 말씀에

섞인 것이 들어오고 마침내 바벨론이 되었다.

교회는 순수한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직무를 다할 때에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은 순교자의 피로 증거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수법을 바꾸어 유희 정책을 쓰고 세상의 정권과 교회가 연합하도록 만들었다. 이 일은 콘스탄틴 황제의 정교(政敎) 연합(聯合) 정책에 의하여 서서히 교묘하게 진행되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이스라엘이 서서히 바알을 받아들일 일을 한 것과 같았다.

고대 이스라엘의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농경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였다(장수돈, 오강남 역, 성서 고고학 입문 64p).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아합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와와 광야와 산의 신이요 전쟁의 신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왔을 때 그곳 주민들은 농경문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농경을 주장하여 풍성한 수확을 주는 것은 우로를 주장하는 바알 신이며 그 토지의 생산은 바알과 그 아내 바알라트(아세라)의 성교섭의 결과로 믿으며 그렇게 제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농사에 풍년을 얻기 위해 서서히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의 종교 바알을 도입했고 바알은 땅을 다스리는 주, 곧 비를 주고 곡식을 익게 하고 포도주와 기름을 주는 신으로 믿었으며, 바알 숭배를 외면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적 영농 기술을 외면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으로 믿었다. 이것은 곧 생활의 안정과 부를 위하여 그 지방 신을 받아들인 것이다"(기독교 사상 '70. 1월호 159, 160p). 이것은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므로 강제성을 띠우고 조직적으로 받아들이게 강압하여 더욱 그렇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마침내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긴 것이다.

농경신은 대체로 태양신이다. 바알은 가나안 족속의 태양신이었다(기독교 대사전 351p). 고대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김으로 태양신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도 이와 같이 하였다. 로마 제국은 종교적 통합 주의를 써서 모든 국민들이 종교적 열망과 전통을 잘 조정해 나갔다. 콘스탄틴이 동 로마와 전쟁을 하여 로마를 통일하려고 하였을 때 그에게는 군사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동로마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교를 관용하는 발표를 하고(이것이 밀라노 칙령이다), 이 사실을 신비화하기 위하여 한 기적을 창안하여 내었다. 즉 "그 때에 그는 '이 승리자에 의하여'라고 새겨 있는 십자가의 형상이 밝은 햇빛에 빛나는 것을 보았다 한다. 이것은 콘스탄틴에게 한 정치적인 방책이 되었으며, 또한 종교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이교 주의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군사적이며 정치적인 승리였다"(인물 중심의 교회사 100p). 그러나 이것은 이긴 듯 하나 기독교가 세속에게 패배한 것이며(대쟁투상 81,82p), 교회가 태양신을 용납한 역사적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일요일 성수(聖守)가 생겨난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태양신의 생일이라 하여 미트라(Mithras)교에서 축일로 지키는 날이었는데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라는 말씀과 결합시켜 예수님의 탄생일로 둔갑시켰고, 태양의 날로 미트라 종교에서 지켰던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일이라는 이름으로 안식일을 대신하게 하였다(기독교 대사전 888p). 이런 일을 교회에 도입하기 위하여 태양에 십자가가 겹친 환상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마침내 콘스탄틴이 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교와 태양신교는 실제적인 연합을 이룬 것이 되었다. 마치 아합이 이세벨을 맞이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리하여 교회는 정권과 연합하였고 이교의 거짓된 교리와 습관이 순수한 복음을 혼잡케 하였다.

이후로 모든 성경 교리의 해석은 헬라 철학과 기존화 된 일요일 준수 문제를 기초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성경 말씀의 순전하고 흠없는 보전은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 두 증인으로 표상

된 성경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1260년 기간의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계 11:3).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권고하여 영적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다시금 순수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관하여 세상에 경고하게 하려고 남은 자손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계 12:17)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계 10:11) 직무를 맡은 것이다. 그들은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이며 물덴 동산과 같은 자들이다(사 58:11,12).

"하나님께서서는 한 무리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그는 지상에서 한 백성, 곧 한 교회를 택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들로 삼으셨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에 전할 영원한 진리를 위탁하셨다"(가려 뽑은 기별 2권 66p).

2. 하나님의 성품의 증인

남은 자손은 말씀을 순수하게 보관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전한 말씀을 보관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는 말씀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이 죄 많은 세상,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고 거룩하신 성품의 증인들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 백성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넉넉히 증거하였다. 아브라함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창 21:22)는 증거를 나타내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창 12:7,8), 그의 이웃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교훈하여(창 18:19) 거룩한 생활을 스스로 보였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창 26:5).

이삭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삭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창 26:28) 이웃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였다.

이삭은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그의 이름이 뜻대로 미소의 사람이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물 근원을 얻었으므로 기뻐하였다.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마르지 않는 물 근원을 얻는 것은 천금의 재산과 같았고, 그런 물 근원을 자손들에게 끼쳐주는 것은 대대로 기념될 유산을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고 이런 물 근원을 준 조상을 존경하였다(요 4:10~12). 그러므로 이삭의 종들이 기뻐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을 본 이웃 족속이 시기가 나서 강제로 그 샘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 때 이삭은 선선히 그 우물을 양보하고 우물 이름을 에섹(다툼)이라 짓고 다른 우물을 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또 좋은 물 근원을 얻었다. 그러나 이웃 족속들이 다시 빼앗으려 왔다. 그럴 때에도 이삭은 그냥 양보하였다. 다만 그 우물 이름을 싯나(대적함)라고 지었을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다른 우물을 팠는데 좋은 물 근원을 얻었다. 그때에는 그랄 족속들도 조용하였다. 그러자 이삭은 그 샘 이름을 르호봇(장소가 넓음)이라고 지었다(창 26:17~22).

이삭의 순전하고 너그럽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는 세상의 재물을 위하여 세상과 다투지 않았다. 그것을 취하려고 노하여 덤비는 자들에게 돌려주었다. 세상 것은

세상 사람이 취하고 하늘 사람인 자기는 하늘 것으로 만족한 것이었다. 그의 심중 깊이 하늘의 원칙이 새겨져 있었고 그는 이것을 실천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히 8:10).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에 참석한 사단에게 내 중 욕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욥 1:8)라고 말씀하셨다.

욥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증인,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증인이었다.

사단의 참소에 하나님은 자기의 어떠하심을 변론하지 아니하시고 내 중 욕을 보라고 말씀하신다. 욥은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실천하는 산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변증(辨證)이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읽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사단이 나타났으며 하나님은 왜 욥에 대한 자랑을 하여 사단이 욥을 공격하게 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것은 이런 것이다.

사단은 이 지구의 장자의 자격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눅 4:5,6).

하나님은 사단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심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욥 1:6, 히 12:23)에 사단이 참석할 권리가 없음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하여 사단은 내가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라고 대답하므로 지구의 장자, 곧 아담으로부터 지구의 장자권을 넘겨받았으므로(눅 4:5,6)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참석하였다는 주장이었다. 이 자리에서 우주의 장자들에게 사단은 자신의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세계도 타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넣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구가 참으로 사단에게 넘겨지지 않았음을 넌지시 지적하셨다. 그것은 내 중 욕을 보았느냐 하는 질문이었다. 그 뜻은 이렇다. 만일 사단이 참으로 지구의 정당한 통치자라면 어째서 욥과 같이 사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니 네 주장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런 대답에 사단은, 하나님이 욥을 왜 도와주시습니까? 나의 영토의 나의 백성을 완전히 내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제안을 수락하셨고 욥의 고난은 시작되었다. 그 무정한 고통 가운데도 욥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다(욥 6:10). 욥은 이런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증인으로 그 직분을 다하였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도 이런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자들이다.

원래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지닌 존재였다. 그러나 죄로 그 형상을 잃어버린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빌 2:6) 본체의 형상이신(히 1:3)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 죄의 인류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요 1:14).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4 을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된 사실에만 적용하는 것은 그 성경절을 반만 이해한 것이다.

오늘날의 말씀인 성경도 육신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한다. 모든 남은 자는 성경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육신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강포가 심하고 사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

3.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시

소돔과 고모라가 심히 부패하여졌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친히 방문하셨다. 그 때 아브라함은 마르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였다.

그 때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중보의 탄원을 하였다. 그 때 자비의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창 18장).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성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셨다(렘 5:1). 그러나 이 성들에 의인 10명이 없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성들이 멸망하였다.

만일 오늘날의 이 죄악 세상에 남은 자가 없다면 이 세상은 벌써 멸망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남은 자손을 보존하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기다리는 것이다. "만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세상에서 제거되고 당신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서 거두어진다면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의 열매인 폐허와 파멸만이 남게 될 것이다. 악인들은 비록 깨닫지 못할지라도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생의 축복까지라도 저희가 멸시하고 압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혜택을 입고 있다"(소망Ⅲ. 18,19). 아직도 이 세상에 은혜가 임하는 것은 남은 자들 때문이다. 아니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려고 남은 자손을 아직도 이 세상에 머물러 두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한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표시로써 남은 자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사업을 온전히 성취하는 관(冠)

세상 역사의 최후에 남은 자손은 이 지구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장식하는 역사의 보석들이다. 만일 이들이 없었다면 역사는 얼마나 어둡고 쓸쓸하게 끝날 것인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히 11:39,40).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정금보다 희귀하게 하실 것이다(사 13:12, 실물교훈 393p). 그래서 갈고 닦고 빛나게 하신다.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많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은 교회, 곧 남은 자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AA 11,12p).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끔찍한 보호를 받는 것은 없다"(6T 42). 물론 역대의 모든 교회가 이러하다. 그렇다면 역사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 이 세상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남은 자손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이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신 32:10, 슥 2:8). 이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기치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존재로(아 6:10) 나타내시려고 하시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무런 흠이 없게 보전하시려고 하신다(엡 5:26,27). 이리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성취되는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하실 찬란한 면류관이 이 남은 자손들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살전 2:19,20).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자마다,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사람마다 인류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그가 구세주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몸에서는 영적 생명의 조류가 흘러내릴 것이다"(AA 13p).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끝까지 보존하고 우리의 역할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제 6 장 남은 자손의 사업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

하나님의 사업은 한 마디로 말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전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였다.

이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위탁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전도하겠다는 서약을 하나님께 한 것이나 꼭 같은 것이다.

D.L.무디를 도와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었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을 지낸 R.A 토레이 박사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전도회에 참석하였다. 그는 흥미를 느꼈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마음에 속히 믿기로 결심하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전도하기는 싫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권고는 마침내 그를 이겨서 마지막 날 설교자의 강력한 호소를 따라 그는 일어나서 강단 앞으로 나아갔다. 전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심을 다짐하였다. 드디어 토레이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힘있게 대답하기를 "예,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벨론이 된 것이다. 순전한 복음 기별을 변질시키고 혼잡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기별이 오히려 진노의 기별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마치 옛날 유대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러나 전도하여 얻은 사람을 자기들보다 더욱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5).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조상의 유전을 지키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므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도록 한 것이다(마 15:3~9). 이런

일 때문에 구약성경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복음은 형식적 율법주의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희생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게 되고 율법을 따라 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의가 되는 것이라고만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창 12:2)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된 것이다.

교회가 진리를 왜곡시키므로 생명의 복음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너져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남은 자손이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 사업을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계시록 14:6~12의 기별의 내용이 남은 자손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전해야 할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기관이나 의료 기관이나 출판 기관이 모두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있다(6T 131p).

이제 간단히 전파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1) 전도자의 일을 감당함

전도자의 일, 곧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 전도하는 일에 철저하고 부지런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 고민의 밤에 겻세마네를 향하여 가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밭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1,32)고 말씀하셨다.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은 자기가 돌이킨 후에 할 수 있다. 또한 남에게 열심히 전파하고도 자기 자신은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편만케 한 바울(롬 15:19)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고전 9:27)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자기 전도하는 일에 절대로 성공해야 한다.

어떻게 자기 전도를 할 것인가?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훌륭한 자기 전도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고 명하셨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며 살아야 한다(신 6:7~9).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입의 모든 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식구들끼리나, 그리스도인 형제들끼리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의 주제가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다.

재림 기별을 열심히 증거하던 1844년이나 그 직후에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말부터가 성경에 대한 것이요, 진리에 대한 것이었다.

"형제여, 어떤 새로운 기별을 깨달았습니까?"

"예, 형제여, 나는 안식일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또는

"성소 문제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대화와 담화의 주 내용이었다. 그런즉 어찌 믿음이 향상하지 않겠는가? 어찌 성경 진리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날마다, 갓난 아이가 젖을 갈구하듯 도의 젖을 갈구하여, 주리고 목마른 것 같이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은 배부름을 입었다(벧전 2:1, 마 5:6).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 81:10). 우리가 자기 전도를 위하여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자기 전도를 성실히 감당하면 자연적으로 가정의 경건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도의 장소로 가장 가깝고 중요한 곳은 가정이다.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면, 사회와 국가와 교회는 건전하여지고 거룩한 도덕적 분위기에 싸이게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 마음에 있는 것 같이(잠 4:23) 국가와 사회와 교회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MH. 352p).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거의가 가정 문제이다. 현시대의 가정은 병들대로 병들고 부수어질대로 부수졌다. 이 시대적 풍조는 서서히 밀려서 남은 자로 자처하는 재림교인의 가정까지 이르러와서 그 죽음의 붉은 혀를 널름거리고 있다.

이런 때 남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한다.

남은 자손의 역사는 가정을 정결케 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사실은 1장에서 이미 말하였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안식일을 회복한 다음 그들의 모든 남은 자들이 가정을 정결케 하도록 호소하였고 선지자 말라기는 가정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재건되어야 한다는 기별을 증거하였으며 이 일을 끝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역사는 끝난 것이다(느 13:23~27, 스 10:1~44, 말 4:5,6).

현대의 남은 자, 역사의 종말에 남은 자들도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식구들이 모여 앉아 성경 연구를 부지런히 해야 하고 기도와 찬미로 가족의 경건을 끊임없이 연습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가정을 전도하는 일에 다음 사실들을 명심하고 일 해야 할 것이다.

① 자녀들의 훈육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보증하였다(잠 22:6).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녀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들은 12세가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응할 의무를 졌던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뜻으로보다는 그들이 12세가 되었을 때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통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좇아 살 수 있는 확고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본다.

남은 자손의 자녀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성경의 순수한 진리 교리의 기초가 튼튼히 놓여진 성경의 아들이 되도록 양육하여야 할 것이다. 남은 자로서 부모된 사람들은 가정 예배 시에, 자녀들과 함께 휴식하거나 놀이를 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성경 진리를 그 생활과 지식에 깊숙이 새기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아침 저녁 가족 예배를 재미있게 인도하는 연구를 해야 하고, 마련된 재료가 없으면 스스로 연구하여 만들어서라도 자녀들을 성경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비록 아이라고 그 동작으로 품행의 청결하여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잠 20:11)게 되는데, 그들이 성경의 아들로 확고해진다면 성경 말씀은 그들을 통하여 육신이 되는 경험을 이룰 것이다.

남은 자로서 재림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와 같이 양육하였더라면 현재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튼튼하고 더 많은 감화를 끼쳤을 것인가! 고대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자

너들이 아람말을 유창하게 하였으나 히브리말은 반병어리처럼 떠들거렸다(느 13:24). 오늘날 남은 자손의 자녀들은 어떤가? TV나 라디오 연속물들의 내용이나 그 프로그램은 유창하게 외우고 있어도 거룩한 말씀과 찬미는 아주 둔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느헤미야는 너무 통분하여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개혁할 것을 단호히 명령하였다(느 13:25). 지금 우리들의 가정에도 느헤미야의 통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부부의 화목

하나님께서 태초에 한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 가정은 부부가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가정이었다(창 2:25). 여기에 가정의 윤리가 어떠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명백한 교훈이 있다. 부부에게는 피차 가린 것이 없어야 한다. 그들은 깊고 넓은 사랑으로 묶여져 참된 의미로 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죄 타락으로 가정에는 가리움이 생겨났다.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고, 숨어서 얼굴을 가리웠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가정의 참된 의미는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다(창 3:7~13).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요일 3:16) 가정의 의미를 새롭게 확실하게 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그의 아내이다(엡 5:22~33). 남편인 그리스도는 아내인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바쳤고, 아내인 교회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였다.

남은 자손으로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상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느끼는 것 같이 되도록, 남편은 예수의 형상을 나타내어야 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았을 때 역대의 가장 충성스러웠을 때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아내는 충성스런 교회의 모습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사랑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서적이나, 철학과 신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주셨다. 가정은 복음 해석장이어야 한다. 남편은 곧 그리스도요, 아내는 곧 그의 교회이며 슬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성경은 복음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라고 말하였다(롬 1:1,2).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아들이며, 그리스도는 남편이요 교회는 아내이다. 이것은 모두 가정의 구성 요소요, 가정 이야기가 아닌가!

남은 자손의 가정은 복음의 해석장으로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그 가정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가장 쉽고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이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정 전도의 근원이다. 남은 자가 그 온 세계적인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남은 자손으로서 남편과 아내들이여 과연 우리는 이러한가?

③ 식생활 개혁

가정은 생활과 성장의 요람이다. 생활은 의식주로 이루어지고 성장은 먹는 것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의 생활이나 주 생활도 지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옷을 입는 법과(민 15:37~39) 집을 짓는 법을(신 22:8) 친히 가르쳐주셨다. 이 모든 방법은 거룩함을 이루고 나타내는 방법들이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과 그 태도

를 뜻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건강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유지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지시하였다(레 11장, 신 14장).

사람의 몸은 그가 먹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을 먹을 때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말한다. 사람이 뼈와 살과 피가 어떤 것으로 형성되었느냐고 말한다면 그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달려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우리의 뇌도 분명히 신체의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의 영향을 받는 것이 틀림없다.

요즈음은 발달된 의학에 의하여, 인체 생리학에 의하여 우리의 몸이 알칼리성을 이룰 때가 건강할 때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다. 체질이 산성이 되면 조급하고 신경질 적이며 사납고 짜증스런 성질을 나타낸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이루느냐 하는 것과 직결된 사실을 발달된 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임상 경험에 의한 발견이 있기 훨씬 이전에 약 3500년 전에 우리의 성질을 체질과 관계되고 체질은 음식과 관계된 것을 아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음식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에 음식물에 대한 지시를 주시고 그 결론으로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44절)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자여 간구하노라"(요삼 2).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강건한 길에서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마땅히 식생활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영양식을 하되 그것은 반드시 알칼리성 음식물로 하고 마땅히 정한 시간에, 식도락을 위하여서가 아니요 건강을 위하여 먹어야 한다. "대신들은 취하려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전10:17).

육류치고 산성이 아닌 것은 없다. 레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육류들에 대하여 기록하였으나 이것은 반드시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육식을 하려면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더 좋은 것은 채식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런 채식으로 사람들의 먹을 것을 지적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식물(食物)은 아무거나 사람이 먹는 것을 다 가리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은 비단 성경 뿐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과 지역을 따라서도 식물(食物)이라는 말은 제한된 뜻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보신탕이라 하여 삼복지절에 개를 잡아먹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개고기는 식물이다. 그러나 구미인(歐美人)들에게 개고기는 결코 식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참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으리라. 우리는 귀뚜라미를 식물(食物)로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귀뚜라미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레 11:22).

이 말을 왜 하시고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는 말을 읽으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먹는 아무 것이라고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한 식물은 하나님께서 식물로 지으신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기호에 따라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을 무조건 식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식물은 다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식물(食物)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딤후 4:3) 즉 먹을 수 있는 것을 사람이 먹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하여 지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 아닌 것을 사서 먹고 있다. 그래서 온갖 질병과 연약이 증가될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2). 그러므로 마땅히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식물로 지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참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될 것이 구별되어진다. 거룩하여진다는 말이다. 이렇게 구별하여 먹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 3:3~5)는 말씀은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뜻을 말씀한 것이다. 이런 뜻을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깨닫는데 그들이 남은 자손이다. 우리의 식탁은 어떠한가? 참으로 개혁되고 있는가? 남은 자손의 전도의 장으로 식탁은 아주 중요한 곳이다. 가정을 전도하는 일에 하루 세끼 식사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때인가! 아무쪼록 남은 자손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전도와 가정 전도에 성공하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영원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성공해야 할 것이다.

2) 전도의 내용

남은 자손으로 재림교회가 전파하는 복음 사업을 흔히 종교 개혁이라고 표현한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을 순종하여 나와야 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2,4).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순전한 복음은 바벨론의 혼잡된 교리에 순수한 성경적 진리를 찾아내어 개혁을 완성한 진리의 교리들이다. 이것을 전파해야 한다. 이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다.

이미 말한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람들이 맡았다.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전할 복음은 천사들이 전한다고 하였는가?

역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천사들이 항상 도왔지만, 역사의 종말에 개혁이 완성된 진리를 전파하는 남은 자손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도움으로 천사가 동행할 것을 상징할 뿐아니라 이 기별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상한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가진 기별이라고 표현하였다.

남은 자손의 사업은 얼마나 고상한 사업인가! 그러므로 이 직무를 즐겁고 능력있게 감당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딤후 4:1~5).

그러면 세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연구해 보자.

①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

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7).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다. 그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다. 그런데 그가 외치기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곧 창조주이시라고 하였다.

온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이 기별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교회가 바벨론화 하면서 교회는 창조주 예배하기를 그쳤다. 이미 거듭 말하였듯이 하나님을 경배할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 근본적 바탕 위에 창조주를 경배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활의 재료인 시간 속에 이 관계를 인식할 날을 제정하셨다. 그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실로 하여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행 17:28)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안식일을 유린하였다. 그리고 로마의 미트라교의 유물인 일요일을 부활의 기념일이라는 미명 아래 온 교회가 지키도록 만들어 놓았다. 성경 66권을 다 읽어 보라. 부활의 기념일을 지키라는 말이 있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였다(마 15:9). 이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배해야 한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야만 그의 백성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무엇인가? 성소 문제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다시 말한다면 “2,300주야까지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단 8:14)는 말씀은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참된 남은 자를 일으키기 위하여 교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신 것을 뜻한다. 옛날 이스라엘의 매일 서서 하는 성소의 봉사는 매년 7월 10일 속죄일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검사에서 표준에 이르렀다고 판정된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었다.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되어오고 선포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앞에 표준에 맞지 아니한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를 여시고 그 안에 있는 법례를 보여주시며(계 11:19) 사람들로 하여금 성소를 주목하게 하시사 구속의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셨다(초기문집 260~262).

이 일에 의하여 바벨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물론 이 심판에는 이미 믿고 죽은 자들의 기록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되었다(계 20:12).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벧전 4:17,18),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교”(행 17:31),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주님은 심판을 시작하셨다. 그 때가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예언한 때였다. 그래서 역대의 모든 신자는 불꽃같은 눈에 살피는 바 되고, 당시에 온 교회가 바벨론화 한 것이 드러나고, 드디어 영원한 복음의 진수인 창조주와 구속주를 올바르게 경배하는 길을 깨닫게 하셔서 이것을 깨닫고 나아오는 자들로 역사의 최후에 남은 자를 형성하게 하신 것이다. 이들이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형성하는

자들이다. 라오디게아란 심판을 받은 백성, 혹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 1844년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지성소의 법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지성소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곧 심판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자들이었다.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도록 전파한 것이 곧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성경의 예언은 항상 그 성취될 때를 가지고 있다(벧전 1:11).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지구상의 모든 조건이 그가 임하셔야 하도록 갖추어졌었다. 이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때도 역사적 사회적 여건이 이 기별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무르익어 있었다.

이 때는 이 세상이 그 전에 결코 가져볼 수 없었던 정치적, 종교적, 지적 자유가 있었다. 격동과 개혁은 당시 주요한 두 개의 구호였고 미국의 독립은 다른 지역에 정치적 자유의 문호를 열었다.

이러한 자유의 물결에 발맞추어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주어졌고 세속적 잡지와 신문의 발간과 때 맞추어 종교 서적과 종교 신문들이 간행되어 사람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교육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서 3R(읽기 - Reading, 쓰기 - Writing, 셈하기 - Recon)은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었고 배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과학의 발달, 특히 운수(運輸)와 통신분야의 발달은 이 중요한 기별을 온 세상에 속히 전파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기원 1800년 이전에는 기선, 철도, 전선, 전화, 백열등, 해저 전신, 전차, 운전기, 식자기, 영사기, 비행기, 라디오, 자동차 등의 문명의 이기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발명들은 세상을 요란하게 하였고 다니엘 12:4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과학적 변혁에 맞추어 기독교계에는, 특히 미국의 기독교계에는 영적 부흥이 휩쓸었다. 이리하여 1844년에 성소 정결을 위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밀리의 기별은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었다. 이 해석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점을 깨달음으로 남은 자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이러한 종교적 부흥은 외방 선교의 길을 열었고 이 일을 위하여 외방 선교회가 조직되었고, 성서 공회, 주일 학교 연합회, 혹은 주일 학교 양성소 등이 이루어졌었다(J.R. 스펡글러, 천사들과 재림교회, 5p).

이리하여 창조주를 기억하게 할 이 기별은 전파되었고, 비록 그 처음 전파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로 선포되었으나 인간의 실수를 선하게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남은 자손들이 형성되도록 지도하신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기별이 증거되자, 교회를 오류로 사로잡고 만족해하던 사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기별을 혼란시키려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창조의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게 하는 진화론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산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혼란케 하는 강신술, 니이체 등이 주장하는 초인 사상 등이, 모두 1844년 이후에 돌아 나왔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제 때에 전파되었고 교회는 개혁되었으며 하나님의 참 교회 남은 자손은 형성되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 내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라는 것이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다.

이 기별이 전파된 때의 모든 사정은 지면 관계로 다 적을 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자세히 읽으면 이 때의 사정을 잘 알 수 있는데, 재림교인은 대쟁투를 깊이 상고하여 그 때의

사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소위 그리스도교의 결과를 선언한 것인데 그들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거절하므로 저들은 저희들의 신앙 부흥을 위하여 하늘이 준비한 방법을 거절하게 되었다"(대쟁투 하 126p).

이 교회는 19세기에 일어난 기독교의 부흥의 물결을 타고 외방 선교를 힘차게 진행시키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므로 전혀 개혁되지 아니한 혼잡된 교리를 온 세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었다. "타락한 종파적 교회들은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독 있는 교리들, 곧 오류의 포도주로 통통 부었다. 오류의 포도주는 영혼의 본래적 불멸, 악인의 영벌,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의 그의 선재성의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신 날 이상으로 주(週)의 첫날을 옹호하며 높이는 것 같은 거짓 교리들로 만들어졌다"(TM. 61p).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지적된 바벨론은 미국의 개신교를 주로 가리킨다.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의 경고를 받지 아니하므로 이미 무너졌고,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빛을 따라 나가는 것 같았으나 개혁이 완성된, 성소를 바라봄으로 깨닫게 된 마지막 개혁의 기별을 거절하므로 무너진 바벨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천주교에서 개혁하여 성경 진리 위에 나아가는 교회를 인정하셨다. 그러나 그 개혁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완성될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별이 가장 강하게 전파되었고 장차 온 세계의 선교활동을 주도할 미국의 개신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므로 무너진 바벨론이 되고 말았다.

옛날에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는 이적을 통해 장차 온 세계의 제국이 될 바벨론의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시고, 그 사자에게 창조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섬기게 하는 기별을 전하려고 하셨을 때, 히스기야의 실패가 온 세상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드는 바벨론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장차 온 세상에 복음 선교를 주도할 미국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강하게 전하므로 미국이 세상을 개혁된 진리로 환하게 하기를 기대하셨으나, 미국은 이 기별을 듣는 일에 실패하므로 오히려 세상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게 된 것이다.

미국에서 주신 개혁의 빛을 간단히 적어 보면, 밀러를 통한 다니엘서의 해석, 2,300주야를 해석하므로 성소 문제를 깨달음,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명의 온전함이 전파됨, 그러나 미국의 교회는 이 기별을 거절한 것이다.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나,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그 기별이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생활의 개혁은 이루지 못하였다(계 2:24,25). 그러나 첫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내용과 함께 이루어질 생활의 실제적인 개혁도 이루어야 한다는 기별이다. 그런데 개신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하고 있다. 오늘날 개신교에 물결치는 부패와 세속화는 무너진 결과의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며 실지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일부 성취되었으나(대쟁투 하 140p). 역사의 종말에 만인이 알도록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아직도 기회가 있을 동안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진리의 대열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③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9~12).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다. 상징적인 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참 설명을 해야 하겠지만, 한 마디로 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바벨론에 남아 있기로 고집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하여 경고하는 기별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한 줄에 달린 기별이다. 각각 독립된 기별이 아니라 같은 기별이 다른 각도로 반복되는 기별이다. 마치 둔주곡(遁走曲 - Fuga)과 같이 화음을 이루며 주제가 전개 발전되는 성질의 기별이다. 그래서 삼중(三重 - Threefold) 기별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 기별은 첫째 기별을 거절하면 무너진다는 것이며, 셋째 기별은 짐승의 표 곧 바벨론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바벨론의 표가 무엇인가? 짐승은 또 무엇인가?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참 교회와 사단의 투쟁의 양상을, 그 변천하는 양상을 따라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인데, 12장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그 여자를 핍박하는 세력으로서 붉은 용이 나타났다. 이것은 교회의 초기 역사부터 핍박당하는 교회와 마침내 남은 자손이 형성되는 역사적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진리 교회는 1260년의 긴 핍박 기간을 지나서 마침내 남은 교회로 형성되었다.

그러자 13장은 핍박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교란시키는 세력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모자이크한 한 마리의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양 같고 두 뿔 난 짐승이다.

13장의 첫 짐승, 곧 일곱 머리 열 뿔과 표범 같은 몸, 사자 같은 입, 곰 같은 발의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이 둔갑한 모양인데 이것은 1260년간 참 교회를 핍박한 어미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짐승이 죽게 되었던 것은 종교 개혁과 또, 나폴레옹의 교황 체포 사건으로 1260년간의 교황 전권 시대, 곧 참 교회 핍박 시대가 끝남으로 교황권 곧 어미 바벨론이 망하는 것 같이 보인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13장에는 이것이 치료되고 온 세상의 추앙을 받으면서, 다시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시작하고, 교회가 땅으로 도망하니까(계 12:16). 이제는 땅에서부터 한 짐승 곧 정권(政權)을 일으켜(단 7:17). 짐승 곧 법왕권 바벨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표를 주어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핍박의 세력이 변모하여 위장을 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남은 자손은 승리하여 마침내 시온산에 설 것인데 이 사람들은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충성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였고 짐승이나 우상의 세력을 거부하고 그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짐승은 어미 바벨론 곧 교황권이요 우상은 딸 바벨론 곧 천주교의 혼잡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한 특히 미국의 개신교이다.

이들이 만든 공통적인 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요일이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주장하는 교리가 많이 다를지라도 안식일은 폐하고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동일하다. 이것은 이 교파들이 연합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

니하므로 내가 그들 중에 더럽힘을 받았노라”(겔 22:26)는 선언을 들 수밖에 없이 된 것이다.

그런즉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디 짐승의 표 곧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따르는 표인 일요일을 지키지 말라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 것이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은 곧 성도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곧 남은 자손인 것이다(계 14:12, 12:17). 이것이 남은 자손의 사업이다. 그런즉 종교 개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선지자들이라고 부른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계 12:17)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예언의 신)(계 19:10)이다. 대언의 영은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계 22:8,9).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이 증거할 기별에 대하여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계 10:11)고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남은 자손에게 특별히 한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를 통하여 많은 계시의 빛을 주어서 바벨론의 혼잡된 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해석하시고 확인하여 진리의 개혁을 완성하게 하셨으며 이 개혁이 완성된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다. 그 선지자는 E.G.화잇이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 개혁된 것이 계시로 확인된 모든 순전한 기별을 증거하는 모든 남은 자로서의 재림교인들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남은 자손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속히 마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이 천국 복음은 바로 세 천사의 영원한 복음 기별이다.

이 위대한 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아멘.

제 7 장 남은 자손의 환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역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상에서 고난의 백성으로 살아왔다. 역사의 페이지들을 갈피갈피 들추어 보라, 어느 페이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흘린 피가 묻지 않았는가? 그들이 이 세상에 고난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 같이 취급되어져 온 것이다.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갈 4:29).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사라는 당시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 후사를 삼기로 계획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권하였다. 처음에는 듣지 않았으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부인의 말을 좇아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후사를 주시려고 하였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에 실패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의 계획에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한 기한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이삭이다. 그런데 이 때에 이스마엘은 14세였다(창 17:24,25).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풍파가 일어났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 지라"(창 21:89), 이 사실을 두고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꺾박한 역사적 시발점으로 설명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초부터 있었다. 아벨이 하나님이 백성으로 최초로 꺾박받아 순교한 자가 되었다. 아벨로 시작하여 역사의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였으나, 특별한 의미로 하나님의 선민(選民)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논할 때에 이삭은 그 첫 꺾박받은 자가 되고 그 시작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때가 된다는 해석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마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6~9).

이삭은 남은 자손의 표상이다. 로마서 9장은 남은 자손이 어떠한 자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부르심을 순종하여 유대인 중에서 뿐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삭을 좇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처음부터 꺾박으로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요 15:19,18).

성경은 이 세상의 세력을 맹수로 표상하였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맹수는 세상을 다스리는 대 제국들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것은 강포와 억압이다. 죽이고 압박하고 짓밟는다. 이런 세상에 처하여 살지마는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한 남은 자손은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봉사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도, 그들의 성질에 맞지 않으므로 꺾박하고 죽인다.

그리스도와 참 교회의 역사가 피로 얼룩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우리의 피로 마지막 고난을 채울 것을 명심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택하였다.

1. 일상 생활에서의 환난

이 세상은 강포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이다. 이런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길에(빌 2:14,15) 어찌 고난이 없겠는가?

우리가 처하여 사는 세상은 남은 자손이 살지 못하기에 꼭 알맞은 세상이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들은 꺾박을 당한다. 그 이유는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 다니엘을 보라, 그가 바벨론이나, 페르샤(바사) 고관들에게 무슨 해로운 일을 했는가? 오히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모든 박사와 술객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을 때 다니엘

이 그들을 살리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기어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사단의 원한과 분노가 그와 같이 철저한 것이다.

초대 교회의 핍박을 보라, 그들이 무슨 잘못을 하였는가? "우리는 여기서 로마가 모든 민족과 모든 종교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쓸 때인데, 왜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당시의 로마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여 비록 새로 정복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을 로마로 들여와서 로마에서 위하는 여러 신과 함께 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편 로마 황제를 존경하며 그를 경배해야 되며 로마 제국의 모든 법률을 복종한다는 국가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단체이고 간에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에게 경배만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신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황제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경배를 소홀히 한다면 정부의 태도도 달라졌다.

처음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핍박을 받은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가 아니었다. 이들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종교의 관용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황제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순응할 수는 없었다. 곧 황제를 존경할 수는 있으나, 그에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왕은 오직 예수 뿐이었다. 이들은 황제가 제정한 율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교 신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말이었다. 이 범위 밖의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엄격한 도덕,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 종교적 배타성은 일반 백성과 로마 황제들에게 적의를 품게 만들었다. 또 이들은 이교적인 예배와 미신 또는 부도덕한 행동과 관련된 직업이나 오락에서는 손을 떼었음으로, 일반 민중은 그리스도인은 비사회적이며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 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충실하려니 로마 법률의 반대자가 되었고 또 예배하는 대상물인 형상이 없이 예배하니 무신론자들과 인정받게 되었으며, 그들의 양심에 거슬리는 법률에 순응하기를 거절하게 되니 무정부주의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또 허가도 받지 않고 비밀히 모여서 부도덕하고 범죄를 하는 무리들이라는 여론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정부에게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인물 중심의 교회사, 46,47p). "핍박의 정도는 꼭 같은 것이 아니었지만 핍박이 일어난 주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상동 29p).

그리스도인이 악질적으로 범죄한 것이 과연 있었는가? 부도덕하였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건전하였고 충성하였다. 그런데도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 이런 핍박에 대하여 변증한 초기 변증서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 얼마나 감명적인 글인지 여기 인용해 보자.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관습에 의하여 다른 인류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저들 고유의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어떤 특별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은 어떤 특별한 양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저들이 가지는 이 가르침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발견 거리나 깊은 사상도 아닙니다. 또한 저들은 그것을 단순한 인간의 가르침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자들이 헬라 사람의 도시에나 야만인의 도시에나 분별없이 살면서 또 각자가 자기의 운명을 따라 살며, 각기 그 나라의 관습대로 옷 입고 먹고 일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저들은 저들 자신의 공동체의 놀라운 통일성과 조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 각자의 나라에 살고 있으나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든 것

을 다른 시민들과 함께 살고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모든 외국이
저들의 조국이며, 저들에게는 조국도 또한 외국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저들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나, 저들은 아기들을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들이 '육신에 있어서' 사는 것이
사실이나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저들은 지상에서 바쁘게 생활하나 저들의 시민권
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들은 모든 법률에 순복하지만 오히려 법률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행
합니다. 저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저들의 정체
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죄를 받습니다. 저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이릅니다. 저들은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저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완전한 풍족을 즐깁니다. 저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나 저들의 그 수욕 가운데서 영광
을 받습니다. 저들은 선을 행하고도 행악 자로 벌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
거움으로 느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위에 인용한 두가지 글은 일상 생활에서 당한 환난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곧 정치
적 조직적 환난이 꼬투리가 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미 앞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 주변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찼다.
그러므로 어울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지탄받고, 신앙과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
하려니까 직업 전선에서 낙후되고, 그러니까 당장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은 일
상 생활에 오는 환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자손다운 확고한 신앙으로 승리하
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롬 8:37 ; 고전 15:58).

이러한 사회적 현실과는 따로 소위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환난은 더욱 괴로운
것이다.

모세는 그의 형제들, 곧 아론과 미리암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답답하였을까? "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민
12:2)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모세가 독주한다는 비난이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 중에
예언의 신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자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고자 할 때에, 마
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한 것과 같은 비난을 하는 형제들이 있다. 이런 경험은 참
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세처럼 온유하게 수용하는 정신은 그리스도인
이 반드시 나타내어야 할 정신이다. 또한 더 충성하고자 하는 형제를 향하여 비난을 할 것
이 아니라 마땅히 배우려는 태도를 취하고, 자신의 연약성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
려 잠잠할 것이다(롬 14:1~4).

환난 중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중에 사는 남은 자는 관용을 연습해야 한다. "너
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 4:5). 관용은 모든 핍박을 능
추고 부드럽게 하는 완화제이기도 하다.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납하되, 나 자신
은 주 앞에 가장 철저히 살아가도록 다스리며 이 일상 생활의 환난을 이겨야 할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바벨론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핍박이 이를
것이다. 이단을 찾아간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
고, 교회적인 비난과 압력을 받기도 할 것이다. 그가 일요일을 지켰더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
었을 직장을 쫓겨나야 하고, 탈없이 다니던 학교에서 제적당하는 억울함도 당할 것이다.

필자도 일찍이 삼대(三代) 장로교회의 교인으로 있다가, 세천사의 기별을 듣고 말씀에 사로
잡혀 남은 자손에 가담했을 때 그러한 환난을 당하였다.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더 큰 기쁨이 이런 곤란들을 압도하였다.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진리 진리만을 위하여, 진리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2. 짧은 기간의 환난

남은 자손은 일상 생활에 환난으로 둘러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역사적 시점에 그들을 기다리는 환난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환난은 그들이 증거하는 기별과 관계되어 일어난다.

이제 앞으로 어느 때가 이르면 남은 자손은 억제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바벨문화 된 교회들은 남은 자손에 대하여 핍박의 화살을 쏘기 시작할 것이다. 이리하여 환난의 때가 시작된다. "환난의 때가 시작될 즈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 안식일을 선포하였다. 다른 교회들과 이름뿐인 재림신도들은 그들이 안식일 진리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격분할 것이었다. 이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진리 편에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와 우리와 함께 핍박을 견딜 것이었다"(초기문집 34p). 여기에 말하는 환난의 시기의 시작은 일곱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 직전 예수께서 아직도 성소에 계실 때를 말한다(초기문집 88p).

남은 자손은 그들이 마쳐야 할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해야 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속히 마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력을 다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삼중 기별을 전파한다.

이 기별은 바벨론의 죄상을 날날이 폭로하고 정권(政權)과 교권(敎權)이, 혼잡된 교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사실을 명백하게 공개할 것이다. 이런 일로 하여 일반 교회들은 크게 당황하고 분노할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능력으로 진행되는 기별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이때까지, 진리를 순종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으나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기별을 깨닫고 과감히 진리를 순종할 것이다.

"이제는 혈연관계, 교회관계는 저들을 매기에 무력한 것이다. 진리는 아무 다른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결속하여 반대할지라도 오히려 많은 자는 주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할 것이다"(대쟁투 합본 674p).

아마 이때는 순교자도 나올 것이다. 순교자를 통하여 기별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순교자의 피가 복음의 씨앗이 되지 못할 경우엔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짧은 환난의 기간은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초기문집 88p).

우리는 이때에 증거하는 무리 중에 힘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이런 평안하고 평범한 시대에 받은 빛대로 사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날 그 환난의 날에 어찌 설 수 있을 것인가?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렘 12:5).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빛에 충실하고 있는가?

3. 야곱의 환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요 16:1~3).

역사에 나타난 가장 큰 핍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다. 소위 진리를 빙자하여 행해지는 악은 그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역사의 종말에 이 일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모든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여 남은 자손을 핍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열심있는 사업이요 사회의 복리와 민중의 평안을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상 세력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핍박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보호된다는 보증이 없다. 즉 중보자 없이 그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이때에 살아 있을 것인지 혹은 미리 잠들 것인지는 모른다. 그 환난의 더 큰 고통은 악의 세력의 위협보다 그들이 과연 주님 앞에 가납 되었는가를 확인하지 못한 심령의 고통인 것이다. 이 고통의 환난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한다(렘 30:6,7 ; 대쟁투 합본 675p이하).

그러나 사실 이 환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이미 완결되었고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이미 결정된 후이다(계 22:11).

하나님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 은혜의 기간이 이미 끝났고, 그 동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이미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모든 운명은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손들은 주위의 핍박하는 세력이 지극히 크고, 사단은 남은 자들 곁에 서서 과거에 그들이 범한 허물들을 회상시키면서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는 중보를 그치시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그들의 죄사한 것을 증거하는 분이 없으므로, 사단의 참소가 참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고난에 빠지는 것이다.

이때에 느끼는 남은 자의 고민은 겟세마네에서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민과 필적하는 것이다(눅 22:44).

모든 환난이 상상보다는 실제로 당한 것이 가볍다. 그러나 야곱의 환난은 아무리 상상할지라도 그 크기를 알 수 없는 환난이다(대쟁투 합본 685p).

이 환난을 쉽게 견디는 법은, 지금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단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공격할 길이 없다(대쟁투 합본 686p). 그러므로 날마다의 생활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 야곱의 환난은 쉽고 가볍게 지낼 수가 있다.

우리는 이런 환난을 이미 알고 이 길에 들어선 자들이다. 그날에 결코 물러섬이 없는 승리를 위하여 지금 주 앞에 주님처럼 살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확실히 이루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환난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려면 많은 지면이 필요하나, 이 모든 일은 각시대의 대쟁투 후반에 자세히 기록되었으므로 이만 줄인다.

남은 자손은 환난을 당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발자국은 피의 발자국이었던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 최악 세상에서의 일이다. 이 최악의 세상은 무한정 계속될 것이 아니고 끝이 오게 되어 있다. 이 최악 세상의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충분히 암시되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악의 세상은 완전히 끝나고, 그래서 최악의 세상을 따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예수 믿는 일을 거절해온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결코 아무 것도 없는 사망을 당하고, 지구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에 의하여 옛 모습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도록 새롭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된 세상에, 모든 구속을 얻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되어 영원히 살 것이다.

남은 자손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변화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화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세상은 이들이 살기에 합당한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세상이 새롭게 된다"(마 19:28)고 하였다. 여기 '새롭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팔링게네시아()'인데, 디도서 3:5에 이 말이 중생(重生)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러니 이것은 세상이 중생된다는 말 씀이다. 중생한 세상에 중생한 사람들만이 살게 될 것이다. 여기가 영원한 천국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딤후 2:11,12)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 4:17).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

고난 후에 넘치는 영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약속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길을 그대로 걸으셨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우리의 고난이 컸던 만큼 영광도 크다. 우리에게 이르러 올, 또 참으로 남은 자라면 이미 소유한 영광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보자.

1.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

예수께서는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성취하신 결과를 인하여 만족하셨다(사 53:11). 그는 이모든 고난을 맛보셨으나 그 고난 당하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셨다(히 2:9).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히 12:4)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 모든 남은 자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을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엡 2:5,6),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

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이 말씀은 역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예수와 함께 예수의 보좌에 앉는 것은 특히 남은 자손에게 한 약속이다.

계시록 3장에 나타난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이며, 이 교회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종말에 구성된 하나님의 참 교회라는 것은 이미 말하였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이 약속은 남은 자에게 하신 특별한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 영원한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계 5:10). 이 새롭게 된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궁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계 21:3), 그 수도(首都)에는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계 21:23,24).

구속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각각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만왕의 왕께 경배하러 수도 새 예루살렘으로 올 것인데, 오늘날의 남은 자는 수도에서 하나님의 궁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입고 있으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 이 영광은 남은 자손에게 이르는 놀라운 영광이 아닐 수 없다.

2. 영원한 신성(神性)에 동참하는 영광

남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성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린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벧후 1:4). 신의 성품, 곧 신성에 참여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엡 2: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신성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히 2:11).

예수님은 친히 선언하시기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神) -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10:35)이라 하시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

옛날에 모세를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바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출 7:1). 과연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권능으로 바로에게 나타났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선언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런데 남은 자들에게 실제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골 2:9,10) 하나님들이 된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특질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품의 질과 영광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다.

남은 자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 안에서 자기 성숙에 매진하여 왔다. 이것을 변화라고 말하였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할”(롬 12:2). 여기에 변화를 받으라고 한 말의 헬라어는 ‘메타모르페()’인데 질(質)이 바뀌어지는 것을 뜻한다.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질, 곧 하나님의 질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이다. 이런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여기에 ‘화하여’라는 말이 역시 ‘메타모르페’이다. 그래서 남은 자손은 이미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였다. 곧 마음으로 이미 신성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된 남은 자손이 그 영광의 날에 외형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곧 신성의 영광이 나타날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 변형되었다는 말이 역시 메타모르페이다. 그래서 내적 신성의 영광이 외적으로도 확대되어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을 남은 자들은 입게 될 것이다.

3.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는 영광

남은 자손은 남은 자손이기 때문에 적은 무리이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눅 12:32).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새 하늘 새 땅을 상속받는 것은 성경이 굳게 약속한 바이다. 그러나 역사의 최후에 남은 자손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였는데, 그것은 일상 생활의 환난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진리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 환난을 당하였고 그 중에 더러는 짧은 기간의 특별한 환난과 곧 이어 이르는 야곱의 환난을 겪었다. 1844년 이후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창조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므로 당하는 특별한 환난을 당하였다. 이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 지성소가 열림으로 분명히 제시된 의의 모든 표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계 7:14,15)라는 허락을 받은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모습은 그 성을 상속할 성도들이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 계시 중에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요한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하여 그 장관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상의 몇배 이상이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영국의 목사요 찬미가 작가인 존 뉴튼은 천국에 대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하면서, 천국에 가면 세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첫째, 생각보다 너무 좋은 천국의 광경에 놀랄 것이며, 둘째, 내가 어찌 여기에 왔는가에 대하여 놀랄 것이며, 셋째, 그 사람이 왜 여기에 못 왔을까에 대하여 놀랄 것이다.

뉴튼의 이 표현은 참으로 재미있으면서도 사실을 잘 나타낸 표현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고 기록하였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로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1~4)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계 22:1~5).

이리하여 모든 구원 얻은 백성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린다. 주님은 친히 띠매고 저들을 섬기면서(눅 12:37).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라고 선포하신다. 이리하여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원한 사귄으로 사귀며(요일 1:3)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할 것이다(계 3:20).

남은 자손의 영광을 더 많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론은 역시 이상에 기록한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남은 자들이여, 이 엄청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런 영광을 이미 소유한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자. 아멘.

제 9 장 안식일

목차

I. 서론

- A. 기독교와 안식일
- B. 문제와 방법

II. 본론

- A. 안식일의 기원에 대한 이론
- B. 안식일 기원에 대한 성경의 주장
- C. 안식일의 성경적 정의
- D. 안식일이란 한글 역

III. 결론

- A. 요약

B. 신앙생활 논리의 모순

※ (10:90)이란 식으로 된 것은 참고문헌 10번 책의 90페이지라는 뜻임.

I. 서론

A. 기독교와 안식일(Shabbath)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을 신약성경과 동등한 권위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서도 그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속의 성취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눅 24:25-27:44-48) 유대교의 종교의식의 집약인 성전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초대 기독교에서는 유대적 요소와 기독교적 해석과 이해 사이에 계속적인 마찰과 갈등이 있었다고 보겠다. 그런데 유대교의 예전적 요소들이 기독교에서 거의 제거되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유대교적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할 신학적 이유들이 역설되어졌으며(행 15:1-29, 갈 4:1-11, 5:1-6) 초대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의식의 목적이요, 완성이라는 확고한 해석과, 이 해석의 신학적, 신앙적 타당성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예전적으로 중요했던 제사나 절기 등은 기독교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골 2:9,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갈 4:10,11; 5:4). 이와 같이 율법적인 모든 의식에서 기독교는 자유했고 예수는 그 자유의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였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이와 같은 율법 이해와 그로 인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오늘날 까지 기독교의 모든 예배의식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소위 주일이라는 날은 초대 교회 때부터 전승된 어떤 예배일과 관계되어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율법과 의식에 대하여 것처럼 강경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성일로 지키는 그 어떤 날에 대하여 어떤 사상과 생활태도를 가졌던가? 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대로 안식일 준수자임에 틀림없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전도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10:90,101).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11~13절에서 보는 바대로 빌립보에서는 안식일에 일부러 기도 처를 찾은 것은 그 스스로의 준수 규례에(10:100-101)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과 생활태도는 그가 유대적 율법과 의식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경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곧 초대 교회가 유대인적 의미로 지킨 것이 아니라 모든 구약적 율법과 예전을 그리스도 중심을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신학으로 미루어 그 안식일을 그리스도인적으로 준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초대 교회에서는 즉시 그의 선생을 따라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켰는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 날 곧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초대 교회에서 곧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속단하여서는 역사적 사실과 크게 다르다." "초대 교회에서는 충실히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10:100)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세력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변개되어진 것이 틀림없다. 권오현씨는 그의 논문 "안

식일과 주일"에서 황제의 날, 즉(군)주의 날을 주일로 변용하였다고 생각하며 제8일 사상에 의하여 매주 성일로 된 듯하다고 추측한다(10:104-110). 그러나 그 논리는 부활의 기념이 왜 일년 일회가 아니고 매주 1일인가의 자신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해결을 주지 못하고 있다(7:470). 오히려 여기에 대한 명쾌하고 정직한 대답은 천주교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 "어찌하여 고교(古敎)때의 토요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느냐 이는 종도들이 예수께 받은 권으로 이렇게 정하신 까닭이니, 신교(신약의 교 = 즉 카톨릭교)와 고교(유대교)를 구별하고 또한 신교의 기초되는 예수 부활과 성신강림이 일요일에 해당하였으므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니라" 이들은 역사적 과정을 거친 변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이다. "로마 천주 교회가 축일 성일을 제정할 권위가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만일 교회가 이 권위가 없다면 현대의 모든 종교가들이 찬성하는 바 일요일을 주일로 세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칠일 안식일 대신 성경상 아무 근거가 없는 7일 중 첫날인 일요일 지키도록 변경하여 놓지 못했을 것이다"(5:886). 그러므로 그들은 십계명의 제 3계명을 '주일로 지키고' 라고 바꾸어 놓고 그 주일이 1주마다 지켜져야 할 이유를 칠일주기로 돌아오는 일주제도의 근거인 창조의 7일간의 안식일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주일과 안식일을 혼동하여 주일이 안식일인 줄로 오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무엇인지를 분간 못하는 사람이어서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중'인 것이다"라고(9:142) 엄포를 놓을지라도 그들은 마태 12장 8절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는 말을 주일과 관련시키고 있는 동안은 주일의 안식일 개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의 날'이라는 의미로 쓰는 주일의 주인인 예수께서 "인자는 안식일(주일- 지금 주일론자들이 말하는- 이 아닌 제칠일 즉Shabbath)의 주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용법대로는 그들이 말하는 주인이 Shabbath(안식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일요준수주의자들이 강단에서 소위 주일성수에 대하여 설교할 때 그들이 찾는 성경구절은 어쩔 수 없이 안식일에 대한 구절인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그들의 성일 내지는 예배일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명확하지 못하므로 논리의 모순을 초래하고 또 신앙생활에 어떤 방향을 야기 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인 신구약 성경이 과연 안식일을 어떻게 정의하며 규정하는 지를 찾아오늘의 그리스도 신앙과 그리스도인 예배일의 정당한 성경적 근거를 확립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B. 문제와 방법

그러므로 본 연구의 중심문제는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찾아보는 것인데 이는 성경이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Shabbath를 안식일이라고 번역한 것이 타당한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성경을 주로 인용할 것이고 또 성경을 "종교사적 문헌이 아니고 단 한번의 계시"(28:23)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 입장에서 살펴 볼 것이다. 소위 문서설이나 양식사적 비평의 입장을 취하지 아니한다. 성경의 하나님적 권위에 의하여 생각하면 문서설 등은 계시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있음에 틀림없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종교 진화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12:406-417).

"구약은 주님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함께 취급하는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태도는 그리스도께서 오늘에도 유행하는 사상, 곧 구약성경은 단지 색다른 재료들이 너절하게 얹혀져 있는 집단체이거나, 또는 책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문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에 정면으로 대항하신 것이다. 성경의 소리는 최종적인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는 인간은 복종하여야만 한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기록된 것은 결정적인 소리였다"(16:29).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계시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확실한 법칙이다."고(17:31) 말한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신조 제일조를 본 연구에서 성경을 살피는 눈으로 할 것이다. 또한 안식일이란 말은 때때로 그 히브리어의 음을 표기한 Shabbath라고 쓸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헬라어 이 쓰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히브리어 Shabbath나 또는 헬라어 이 성경에서 뜻하는 바가 무엇임을 밝히고, 그 밝혀짐이 오늘의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뜻하는가를 밝히는 하나의 시론이 될 것이다.

II. 본론

A. 안식일의 기원에 대한 이론

이 이론은 성경의 문서 편집설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한 이론들이다. 창세기 2장에 나타난 최초의 안식의 기사를 BC 550년경의 신학적 해석으로 돌리면서 진짜 안식일 즉 Shabbath의 기원을 성경의 주장과는 다른 데서 찾는 것이다(10:58, 11:183). 이에 잠깐 이 기원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자.

1. 바벨론의 기원설(The Babylonian Theory)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Shabbath는 그 발음상으로 바벨론의 보름을 부르는 Sapattu 혹은 Sabattu와 흡사하다, 그런데 이 Sapattu의 뜻이 휴식의 날(um nuh libbi a day of rest of the[God's] heart)이라는 것이다.

또한 바벨론의 다른 기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달력이 7일 주간을 채택하고 있는데서 시작했다고 본다. 역시 이것도 7일을 Siputu, 15일을 Sabattu로 부르는 발음의 유사성에서 추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설은 바벨론의 금기일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바벨론에서는 7의 복합수인 7, 14, 21, 28일을 금기일(Taboo)로 여겨 이 날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 날에 활동하면 재난이 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약의 안식일 즉 Shabbath가 왔다는 얘기다.

2. 장날설(The-Market-day Explanation)

이 설은 구약 아모스 8장 5절과 느헤미야 13장 15절에 근거하여 고대인들이 장날에 각지에서 모여 서로 교환하고 신께 제사드리기 위하여 쉰 것이 안식일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3. 달력설(A Calendarical Theory)

이 설은 고대 Mesopotamia 지역에 널리 사용된 농사를 위한 달력에서 안식일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달력은 1년을 7주 더하기 1일의 일곱 50일로 나누고 그중 일주간의 잔치를 갖는 두 축제의 기간과 거기에 가장 거룩한 하루를 더한 365일의 달력을 가진 데서 안식일이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

4. 켄 족속설(Kenite Theory)

이것은 별을 섬기는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켄"이라는 (삿 1:16, 출 2:15) 이름은 "가인"(Cain)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가인"이라는 말의 아람어와 그 뜻이 대장장이라는 뜻으로 고대 미디안의 대장장이들이 토성을 예배한 데서 안식일이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6:1111, 10:58-66, 12:408-411).

B. 안식일 기원에 대한 성경의 주장

"유대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창조주 신앙이 모든 생활과 사고의 모퉁이 돌이 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신이 곧 창조주시라는 말이다. 창조주 이 외의 모든 존재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피조물, 또는 피조자인 것이다. 이 창조주와 피조자는 서로 혼동될 수가 없다. 피조자가 아무리 높이 상승된다 할지라도 그가 창조주 반열에 동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전승한 가장 엄격한 전통이다"(29:2).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강조하고 주장할 때 항상 창조주 되신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 천지간에서 신이라고 추앙되는 것들은 그것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참 신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망할 것이고 선언한다(렘 10:11).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실 충분하고 마땅한 이유는 그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자인 사람은 마땅히 그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경될 수 없는 관계를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활요소인 시간, 즉 날(日) 속에 확정하시고 인치신 것이다. 그것이 창조주간의 끝날 곧 제칠일에 당신께서 쉬신(Shabbath) 행위로 구별하시고 곧 그날을 안식일(Shabbath)로 창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를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1-3) 이 말씀은 "주전 550여년 전의 문서이므로 안식일 기원 연구를 위하여는 너무도 후대의 것"인(10:58) "유대 종교가들의 '신학적 해석'이(10:79) 아니라 확실한 역사요(16:49) 엄연한 사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술한 바와 같은 잡다한 안식일 기원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므로 그는 시간의 창조주이시며 그러므로 그는 안식일의 창조주이시다(21:288).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사업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만물은 완전하였고, 거룩하신 창조주께 합당하였으며 그분은 피곤한 자같이 쉬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혜와 선하심의 열매와 그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후에 사람을 위하여 이 날을 쉬는 날로 성별하셨다. 창조주의 모본을 따라 사람은 이

거룩한 날에 휴식할 것이었는데 이는 그가 하늘과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사업을 회상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의 증거를 봄으로 그의 마음에 창조주께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제칠일을 축복하심으로 당신의 창조 사업의 기념일을 제정하셨다. 안식일은 전 인간 가족의 아버지요 대표자인 아담에게 맡겨진 바 되었다. 안식일의 준수는 세상에 거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은 저들의 창조주와 정당한 주권자이시며 저들은 그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었다”(18:40).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주 신앙”의 “모퉁이 돌”이면 “이 창조주와 피조자는 서로 혼동될 수가 ” 없는 엄격한 사실의 증거로서 이 피조된 세계에 오늘도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시부터 영원토록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지적하며 그 관계의 인격적이 상태인 예배를 위한, 시간에 세운 하나님의 성소로(8:212) 존재하는 것이다. 그의 창조한 사실이 영원하면 똑같이 안식일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신학적, 신앙적 또는 계시로서 타당한 이유로 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막 2:27) 사람이 자기 편리대로 아무 날이나 하루 쉬면 된다는 의미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이 해석되어 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모독하는 것이 될까 심히 두렵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마 12:8)이란 말씀도 같은 원리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안식일쯤 맘대로 할 자유가 없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7:475)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러한 창조한 사실과 그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Shabbath,)의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나 사람의 안식일이 아니요, “여호와와 안식일”, “내(나의)안식일” 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뜻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요 1:1-3, 창 1:1-2:3).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주의 날은 군주의 날에서 차용한 주의 날이 아니라(10:107-108) 성경적으로 마땅히 안식일로 이해되고 받아 들여져야 한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는 말씀은 교훈과 위안으로 충만한 말씀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그것은 주일(the Lord’s day)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한다”(21:288).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서 그리스도를 보며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하리라”(마 11:28)는 예수의 초청의 생활적 실재를 맛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안식일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 자신의 안식하신(Shabbath) 행동에 있다고 너무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한자어를 그 훈으로 새겨 평안히 쉬는 날로 해석하고, 사람이 쉬는 날은 어느 날이나 안식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와는 상관없는 것이며, 상관없음을 말과 행위로 공언하는 것이다(딤후 1:16). “안식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무궁한 사랑의 배려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불찌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출 16:29)라고, 안식일은 은사(恩賜), 즉 주어진 것이며, 특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사로 볼 때, 안식일처럼 마음에 즐거운 것은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휴식의 날은 아니다. 이는 여호와와 안식일”이다(13:117). 그러므로 이 “여호와와 안식일”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시간, 즉 24시간 하루의 안식일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사람을 위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의 일면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일로 보여 주셨고, 안식일의 날짜 계수가 인간적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이고 또 그것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 40년을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분명하

게 지시하시고 인식시키셨다(출 16장).

"주일은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의 기원되어 성경 역사를 통하여 보존되고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다. 그것도 다른 모든 주일같이 글자대로 7일로 되었다. 창조사업에 6일이 걸렸다. 제 7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시고, 이 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을 위하여 휴일로 구별하셨다"(18:129). "출애굽기 20장 8-11절의 안식일 계명은 창세기 1장의 주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일에 창세기의 1일이 현실적이 1일이 아니라면 제 7일의 안식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히 안식일의 계명에서 보는 창조의 6일은 여자적(如字的) 6일이요, 장구한 6시대를 말하지는 않았다"(30:31-32). 그러므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하고 확실한 법칙"인 성경의 안식일은 천지와 만물을 엿새동안 다 만드시고 제 7일에 하나님이 쉬시므로(Shabbath) 그 하나님의 절대적이 창조적 행동에 의하여 안식일, 즉 Shabbath가 창조된 것임을 성경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C. 안식일의 성경적 정의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민해 온 한 청년이, 미국의 한 큰 도시에서 전도 집회가 끝난 뒤에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는 토요일을 '수보타'(Subota)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는 제 7일은 '수보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주일 중 마지막 날이 '수보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의 감독은 왜 저에게 수보타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에 교회에 나오라고 말합니까?(18:129)

이것은 일주, 요일, 이름에 있어서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수보타' 즉 성경에서 우리말로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그 같은 뜻인 말로 씌여진 한 예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들의 성경에 제칠일을 '수보타'라고 번역했고 그들의 달력에서 우리의 토요일을 '수보타'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 성경에 수보타를 거룩히 지키라는 요구가, 그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확실한 법칙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명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Shabbath로 말미암아 그 Shabbath를 어떤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은 Shabbath의 정당한 이해를 위해서 요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Shabbath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구약성경에 Shabbath가 101번(19:422) 쓰여져 있는 바, 그 대부분이 제 7일 안식일을 가리키는데 쓰여졌다. 제 7일을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9회 정도 쓰여졌는데 우리말 구약에는 6회를 안식으로(레 25:2, 4:26:34, 35, 43) 3회를 안식년으로(레 25:6, 8 역대하 36:21,25) 번역하고 있다. 그 외에 일주일을 구분하는 표로 안식일이 쓰여졌고(레 23:15) 나머지는 제 7일 안식일을 가리키는데 쓰여졌다(3:932).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다른 말로 Shabbaton이 있는데 이 말은 대부분 절기에 부속된 안식일, 즉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데 쓰여졌다(19:422). 그러므로 성경의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Shabbath라고 하면 곧 제 7일을 고정적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성경용법은 고대 성경 번역자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되어진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히브리 구약성경의 헬라역인 Septuagint(70인역)에는 Shabbath를 거의 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중에도 제 7일을 가리키는 날은 예외 없이 으로 번역했다(그 외에 안식년에 관하여, 또 절기에 관하여 쉬는 때라고 번역하지 않고 라고 한 것은 히브리 성경의 용법과 별로 차이가 없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 혹은 그 명사인

은 원래의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Sh bath와 Shabb th에서 꾸어 온 외래어이다 (19:422). 히브리어를 음차 혹은 음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Septuagint 역자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 제 7일로 고정된

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Shabb th를 쉬는 쉼의 날로 번역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빌려와서 헬라 자모로 이라고 한 것이다.

이 70인역은 신약교회의 성경이었다(19:42). 그러므로 신약기자들이 그들이 복음서와 편지를 쓰면서 를 언급할 때 그것은 제 7일 외의 다른 날일 수가 없는 것이다.

Septuagint에서는 '쉴다'는 말의 가 제 7일 안식일 외에도 쓰여졌으나, 신약에

가 쓰인 일은 없고, 다만 안식일을 으로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뜻을 사람이 편리한대로 어느 날을 하나님께 드려 쉬면 그 날이 곧 안식일이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성경의 본의와는 엄청난 거리의 오해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은 제 7일이 바로 사람의 축복과 성화를(창 2:1-3, 겔 20:12)위하여 있다는 말씀이다. 그 당시 사람을 속박하는 모든 랍비들이 해석과 전설에 의하여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그날이 사람의 안식과 축복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사람은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다음 날, 곧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다. 하나님은 일하신 후에 안식하셨는데, 사람은 처음부터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은 먼저 은혜와 안식으로써 시작되는 신약적 축복"을(14:7)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 즉, Sh bath, Shabb th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또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씀도 예수께서 안식일을 마음대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결코 해석되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말은 단순히 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도 인정하시고 자기 규례대로 지키신(눅 4:16) 그 안식일 Shabb th(), 즉 그 제 7일인 날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이란 뜻인 것이다. 성경은 안식일의 일요일 변경에 대하여 굳은 침묵을 지킨다.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을 또한 전혀 암시도 없는 것을 신앙의 제도화하는 것은 이미 성경적인 기독교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이 안식일 이 우리의 주일 이름으로 토요일을 고정하여 지칭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요일 이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술한대로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을 '수보타'라고 한다. 물론 그들의 성경에 안식일 제 7일을 '수보타'라고 번역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로 여전히 불리움. 언어를 연구하다 보면 몇가지 대표적인 예로써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어로 '소보타'(Sobota), 러시아어로는 '쉴바타'(Subbata), 불가리아어로는 '쉴부타'(Shubbuta), 아랍어로는 '아스-삽트'(As-sabt), 포르투갈어로는 '삽바도'(Sabbado)입니다. 스페인어 사전에 이르기를 「'삽바도'(Sabbado)는 히브리어의 '안식일'을 번역한 것이며, 그것은 라틴어 '삽바툼'(Sabbatum)으로부터 스페인어로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로 토요일을 '사바토'(Sabato)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물론 안식일이지요. 적어도 105개의 언어가 이와 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215,216) 그러므로 적어도 로마 문자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나라들은 Shabb th나 을(1:370) day of rest로 번역하지 않고 Shabb th로 고유 명사화된 형식으로 음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주일(일요일론자들의-일요일)은 결코 안식일일 수는 없다. 그와 같이 또한 안식일이 결코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뀌어 질 수도 없다. 우리가 기억하여 지킬 복된 안식일,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요, 우리 주님 예수의 날인 그 안식일은 제 7일, 곧 오늘의 토요일 그 날이요, 그 날만을 가리키는 말이 안식일(Sabbath)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초대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가? 서론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초대 교회는 충실히 안식일을 지켰다(10:100). 그것은 단순히 습관적인 준수가 아니라 기독교적 신학으로 확립된 입장에서 지켰음에 틀림없다. 초대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약성경은 대략 주후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바울 서신은 50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그곳에 논의된 문제는 그 때의 문제요 해답이며 역시 오늘의 해답이기도 한 것이다. 창세기로 계시록까지 계시는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초대 교회의 계명관이 어떠했던가? 바울은 할례 문제에 언급하면서 "할례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고전 7:19). 할례는 분명히 율법이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관념으로 해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갈 3:19)고 말하여 범법, 즉 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더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으나 하나님의 계명은 지킨다고 했고, 로마서 13:8-10에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언급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때 온 율법은 십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요한에게서 더욱 현저하다. 그는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 구성원인 "그 여인의 남은 자손"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했고, 또 성도에 대하여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계 12:17, 14:12) 말했다.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1-3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제시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태복음 19:17-19에서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로 봐서 적어도 신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런 일관된 사상에서 볼 때 계시록 1:10의 주의 날은 제 4계명의 안식일임에 틀림없고, 요한은 밤모에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런 예배 중에 그는 계시록을 기록할 계시를 본 것이다(20:581). 이러한 확실한 신학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여 언어를 창조하면서까지 강조된 것은 의미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히브리서는 3장과 4장에서 여호수아와 가나안 입주 안식에 대한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식에 관련하여 논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말을 즐거움을 사용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말한 4장 9절에서는 낱말이 달라졌다. 그것은 가 아니라 이다. 그런데 이 는 Septuagint나 헬라어 신약성경 중에서 오직 여기 한번만 나타난다. 또한 다른 헬라어 문헌에도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의 조어로 간주된다(19:180, 11:180).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가 아니고 인가? 이것은 그의 '안식'의 성격을 밝힌다. 저자는 그가 말하는 '안식'이 여호수아의 '안식'보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안식'(Sabbath)과 관련된 것을 밝히고자 하고 있다(11:180).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할 때가 남아 있다는 말이다. 즉 안식일을 지킬 때가 남았다는 말이다. 이 낱말이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한 그것은 제 7일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자는 4절에서 제 7일에 대하여 언급했다. 하나님은 제 7일에 쉬셨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안식, 곧 제 7일 안식을 그들도 누려야만 할 것을 강조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의 분명한 의미가 10절에 나타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쉬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일을 쉬셨는가? 곧 "

제 7일엔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히 4:4).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쉬는” 것은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헬라어 사전들은 이 낱말을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쉬시고 안식일로 제정한 그 안식일을 참된 안식일로 쉬는 자들만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그 안식일만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인하고 경배하도록 계획된 피조자의 생활의 재료인 시간에 세워 놓은 하나님의 성소요, 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겔 20:20)고 하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있을, 창조주를 생활에서 내어쫓은 큰 배도자들을 향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외치는 것이다(계 14:7).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가 아닌 를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단어를 창작하면서까지 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제거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역하심도 없으시다(히 13:8, 약 1:17).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친히 당신의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창정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40년간 계속 지정하여 인식시키시고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규례로 지키셨고, 그의 성서 기자를 통하여 낱말을 창작하게 하시면서 강조하시고, 또 계시록에 보낸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내용으로 천명하신 이 거룩한 제 7일 ‘샤바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며 오늘의 그 백성들은 만약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일요일 주일이 아닌 참 주일, 곧 ‘샤바트’(안식일)를 거룩한 날로 예배와 신앙생활의 중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엄격한 전통”이며(29:2) 성경의 명백한 지시인 것이다. 성경의 안식일은 제 7일 곧 현재의 토요일 외에는 결단코 다른 날이 없다(앞으로 인위적으로 일주일일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D. 안식일이란 한글 역

“한 나라의 언어를 타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불가능하다. 더욱이 말이라는 것은 연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과 역사와 개념, 다른 말과의 연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연상은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번역할 수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의미상에 미치는 것이다”(15:6-7). 안식일이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된 원어는 히브리어로는 Shabb th이고 헬라어로는 이다. 앞에 누차 언급한대로 헬라어는 히브리어에서 빌어 온 번역이라기 보다는 음사라고 해야 할 정도로 새로운 헬라어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예는 라틴어나 영어, 혹은 독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어에서 Sabbath라고 말할 때, 또는 독일어나 불어에서 Sabbat라고 할 때, 그것은 day of res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Shabb th, 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Shabb th나 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역사와 개념을 무시하고 그 말이 가진 낱말적 의미만 나타나게 되도록 안식일이라고 번역하므로 이러한 번역을 한 동양적 오해가 야기되고 있는 듯 하다. 그래서 그 한자의 훈을 새겨 편안히 쉬는 날로 해석을 함으로 Shabb th의 원래의 역사와 개념을 망각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하여 7일 중 하루를 편히 쉬면서 예배하는 날로 정하면 그것이 안식일이 된다고 이해하게 됐다고 번역상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본

다. 김재준 박사의 주장대로 결코 주일(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다. 또한 안식일은 편안히 쉬는 7일 중 아무 날이나 한 날이 아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기념하여 쉬시고 사람에게 창조주를 기억하여 경배하도록 친히 제정하여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여기 안식은 인간의 안식에 관련하여 안식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그 안식을 사람의 안식과 축복과 거룩을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쉬어도(안식하여도) 안식도, 안식일도 있을 수 없다.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하여서는 절대로 그렇다. 그러므로 선인들은 Shabb th를 으로 , 또는 이것을 그들의 글자로 음사하여 Sabbath, Sabbat 또는 전술한 몇 나라의 예대로 말을 만들었다고 보겠다. 이럴 때 그 말의 쉬는 날이라는 해석은 2차적인 것이요, 1차적으로 히브리어의 Shabb th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것은 즉시 제 7일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안식일이라는 '편안히 쉬는 날'로 쉽게 풀이 될 낱말적 의미를 살려 번역했을 때는 히브리어의 제 7일 Shabb th 보다는 1차적으로 '쉬는 날'이라는 이해가 쉽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점엿 이미 그 Shabb th나 가 제 7일을 고정적으로 지칭하는 고유명사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우리도 그 이름 그 발음대로 '사바트'나 '췌바트'로 이해하게 되도록 쓰여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되면 '안식일이 첫째 날이다. 일곱째 날이다.'라는 논의는 평신도들에게도 문제가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자를 그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도 원음을 음사한 의미는 2차적으로 부각되고 그 고정된, 성경이 지시하는, 그 날만 가리키도록 우리 성경에 쓰여졌으면 더욱 합당하겠다는 말이다.

III. 결론

A. 요약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유대교의 성경인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으로 성취되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한 신학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우고 생활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적 율법의 모든 의식에서 자유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그리스도교적 신학 위에서 오히려 안식일은 강조되어 지켰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주일의 첫째 날이 아니고 여전히 제 7일이었다.

성경을 하나님의 종교사적 문헌으로 보아 문서설 등에 근거하여 해석하지 않는 한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3절에 그 근거가 있으며 이것은 확실한 역사요,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졌다. 그렇게 가르쳐진 그 안식일은 성경에서 Shabb th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고정된 제 7일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 말의 낱말적 의미에 의하여 아무 날이나 쉬는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쉬시고 창정하신 제 7일 그 낱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에서도 안식일이라고 그 훈을 해석하려는 유혹을 받도록 번역하지 말고, 본래의 발음을 살리는 번역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성경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에게서만 유래한 그 안식과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을 라는 말을 만들면서 역설한데에 이런 이유를 찾을 수 있다.

B. 신앙생활 논리의 모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유일한,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요 15:5), 또한 그리스도와 상관 없는 신앙과 사상과 행위를 나타낼 때는 이미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은 곧 예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요 15:7) 것을 말한다. 이 예수의 말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마 24:31) 말이며 이 말에 보태거나 제할 수 없는 말이다(계 22:18-1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규범은 필연코 성경 일변도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교부들의 글이거나, 목사의 말이거나, 논리가 정연한 신학박사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으면 학문으로서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가치일 수는 없다.

안식일 문제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순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논리는 분명히 성경을 벗어나고 있다. "주일성수 의무를 일례를 두고 보라. 그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마는, 성경에서는 일요일 성수에 대한 명백한 한 구절도 찾아 볼 수 없다.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요, 일요일은 아니다"(7:93). 이것은 결국 그들이 성경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이행치 않고 있음을 공언하는 말이 아닌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의 성일은 제 7일 안식일이다. 성경의 명백한 지시와 상관없는 역사적 주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계시는 신구약 66권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의 모든 것은 이 계시의 충분한 이해에 불과하다. 계시에 없는 것을 역사적 전승이라는 이유로 하여 신학적 해석을 강행하여 성경적 그리스도교의 제도를 삼는 것은, 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람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그 제사장들은...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겔 22:26). 참으로 하나님을 더럽히지 말자.

태초부터 영원까지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께만 경배와 영광과 찬양이 돌려져야만 하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고영민, 성서원어대사전. 서울 : 기독교문사, 1973.
2. 박창환, 聖書 헬라語 辭典. 서울 : 大韓基督教書會, 1965.
3. 이성호, 聖句 大 辭典. 서울 : 惠文社, 1968.
4. Morrish, George. A Concordance of the Septuagint. London : Samuel Bagster & Sons Lim. 1974.
5. Seventh-day Adventist Bible Students' Source Book.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 Asso., 1962.
6. Seventh-day Adventist Encyclopedia. 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Pub. Asso. 1996.
7. 기본스(Cardinal Gibbons), 敎父들의 信仰. 張勉 역. 서울 : 京鄉雜誌社, 1954.
8. 김이열, 사명 72부흥 전도 설교집. 서울 : 한국연합회, 1972.
9. 김재준, 長空 金在俊 著作全集 I. 서울 : 韓國神學大學, 1971.
10. 金正俊 博士 紀念論文集. 聖書神學과 宣敎. 서울 : 韓國神學大學, 1974.
11. 金正俊, 신약주해 히브리서. 서울 : 大韓 基督教書會, 1964.

12. 金正俊, 이스라엘 信仰과 神學. 서울 : 聖文學會, 1970.
13. 內村感三, 聖書注解全集 第 2卷. 이성호 역, 서울 : 惠文社, 1971.
14. 米田 豊, 舊約聖書講解. 서울 : 惠文社, 1969.
15. 바클데이, W., 新約聖書 헬라어 精解. 서울 : 기독교문사, 1974.
16. 영, E.J., 구약총론. 홍반식, 오병세 역. 서울 : 한국개혁주의 신행협회, 1973.
17.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교회 요람. 서울 : 시조사, 1961.
18. 화잇, E.G., 부조과 선지자 상. 김동기 역. 서울 : 시조사, 1974.
19.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vol.7, Washington, D.C., : Review and Herald Pub. Asso., 1957.
20. White, E.G., The Acts of the Apostles. Mountain View, Calif., : Pacific Press Pub. Asso., 1911.
21. White, E.G., The Desire of Ages. Mountain View, Calif., : Pacific Press Pub. Asso., 1940.
22. 성경전서(개역한글판), 서울 : 대한성서공회, 1966.
23. 신약전서(새번역), 서울 : 대한성서공회, 1967.
24. Holy Bible(King James Version), New York : American Bible Society, 1966.
25. Hebrew-English old Testament, London : Samuel Bagster& Sons Lim. 1971
26. H KAINH ΔΙΑΘΗΚΗ, London :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956.
27. The Septuagint Version Greek and English, London : Samuel Bagster& Sons Lim.
28. 基督教思想, 1963. 8,9월호, 서울 : 基督教思想社.
29. 기독교사상, 1970. 8월호.
30. 神學指南, 1974. 가을호, 서울 : 신학지남사

제 10 장 144,000

목차

- I. 서론
- II. 이스라엘 12 지파
- III. 십사만 사천인
 - A. 십사만 사천인을 한정하는 특성 문제
 - B. "십사만 사천" 의 의미
- IV. 결론

※ ()안에 (요 3:16)처럼 된 것은 성경 장 절이며,
 목차(7:41)처럼 된 것은 참고문헌 7번 책의 41페이지라는 뜻임.

I. 서론

A. 연구의 의의

십사만 사천인 문제는 계시록에 나타난 사건들 중에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속(救贖)을 얻을 사람을 수(數)로 표현한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구원 얻을 사람을 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한 없이 구원을 얻는다(요 3:16). 그런데 십사만 사천이란 수로 제한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계 14:3)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그것은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의 수가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말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명확한 해답 없이 서로 논란만 되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사만 사천인이 누구며 특히 그 수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 그 사실을 밝혀 보는 것은 의의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제 칠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이하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책으로 믿고 있는 교회이다(14:567-581). 계시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는 "열어보임, 드러냄, 벗김"(7:41)이라는 의미이므로 책 이름 자체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자체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계 22:10)고 선언하므로 이 기록이 이해될 수 있고 이해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계시록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권장한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보다 잘 이해될 때에 신자들은 전적으로 다른 신앙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22:14).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가운데 예언적 부분들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들을 연구하면 특별히 축복이 함께 하리라는 약속은 분명하다"(16:523). "목사들은 제 칠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신앙의 기초로서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제시해야 한다.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은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8:4,5). 이러한 강력한 권고와 함께 Ellen G. White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여러 국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13을 읽어 보라) 재림교인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말세적 사건에 대하여 그 이해에 익숙하여져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 모든 구체적 이해에도 불구하고 십사만 사천인에 대하여는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십사만 사천이라는 수에 대하여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된 것이다.

B. 문제와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성경에 나타난 십사만 사천인 문제이다. 특히 십사만 사천인이 실제적 수인가, 상징적 수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의하여 연구의 범위는 한정되는 셈이다.

그런데 십사만 사천인의 성품이나 지위나 그들의 특성을 일일이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수의 문제를 해석함에 필요한 경우는 이러한 측면들도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십사만 사천인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 7장과 14장 이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계

시록의 이 부분이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연구 방법은 십사만 사천에 대하여 기록된 사항을 분석적으로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함에 필요한 십사만 사천인에 대하여 언급한 문헌들을 비교 검토할 것이며 특히 Ellen G. White의 저서가 인용될 것이다. 그러나 주로 계시록과 성경 자체가 이 문제에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어 성경 자체에 의한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II. 이스라엘 12 지파

성경 중에 십사만 사천인이 처음 기록된 곳은 계시록 7장이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3,4).

그런데 여기 열거된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은 구약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구약에도 이스라엘 12 지파 이름이 여러 번 나오지만 그 순서나 이름이 항상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까지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름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야곱의 부인들의 정실(正室)의 아들로부터 부실(副室)의 아들 순으로 기록되었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전부 기록된 것은 창세기 35:22~26인데 여기도 레아의 소생(所生)으로부터 라헬의 소생, 그리고 빌하와 실바의 소생의 차례로 기록되었다.

창세기 46:8~26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곱의 열 두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어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이 먼저 기록된 사실은 창세기 35장의 경우와 같으나, 그 다음은 실바의 아들인 갓과 아셀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실바가 레아의 몸종이었으며, 레아의 청에 의하여 야곱의 첩이 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레아에게 속한 소생들이 먼저 기록된 것이다.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의 소생인 단과 납달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창세기 48:5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하여 야곱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로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창 48:5,6).

그러나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의 열 두 아들의 수에 넣지 않았고 그 축복할 때의 이름의 순서는 그 연치(年齒)대로, 레아, 실바, 빌하, 라헬의 소생 순으로 하였다.

이 축복의 기사 끝에 처음으로 "이들은 이스라엘의 십이 지파라"(창 49:28)고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 기록 전에는 지파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의 기록이라는 뜻이 되겠다.

그런데 이 축복의 기록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없이 이미 12 지파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후에는 12 지파 이름 중에 반드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파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13 지파라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12 지파라고 말하며 또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13 지파인 이스라엘을 12 지파라고 했을 때는 한 지파가 계수되지 않아야 한다. 12의 계수에 들지 아니한 지파는 레위 지파이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민 1:47~49)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12 지파의 계수에 들지 않았다.

물론 민수기 1장의 계수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할 때의 사건이다.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위해 따로 떼어놓았기 때문에 전쟁의 임무를 수행할 군대를 계수하는 지파 중에서 계수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은 아예 12 지파로만 불려지고 있으니 13중에 하나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마다 거의가 레위 지파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 기록에는 시므온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므온은 축복에서 제외되고 이스라엘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요셉의 이름을 축복하는 중에 언급되었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회복된 이스라엘의 기록 중에는 13 지파가 다 나타난다(겔 48:1-13).

그러므로 이스라엘 열 두 지파는 그 이름을 완전하게 항상 일치하게 기록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틀림없다. 12 지파는 그 이름 자체에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로 나눈 기업의 지역이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이주하여 그 땅을 나눌 때 12등분하여 각 지파에게 나누어주었으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일에서 제외되었다. 그들에게는 성소 봉사하는 일이 그들의 분깃, 곧 기업으로 보증된 것이다(신 10:8,9 ; 18:1).

그렇지라도 그들이 거주할 땅과 살집은 있어야 하였다. 그래서 기업을 분배받은 12 지파에서는 그들의 분배받은 지역의 크기에 따라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그 들녘을 제공해야 되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돌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가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민 35:1-8).

결국 레위 지파는 12 지파의 영역 안에 거하는, 흠어져 사는 지파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처한 지역에서 종교와 신앙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열 두 지파의 지역에 살면서도 지역으로 나눈 열 두 지파에서는 빠진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이스라엘 열 두 지파라고 할 때에 이미 그 영역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사실에 의하면 열 두 이름 안에 어느 이름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 계수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미 본대로 레위 지파는 거의 항상 빠졌고, 시므온 지파도 빠졌고, 신명기 27:11-14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없는 대신 요셉의 이름이 들어 있다. 그러나 12라는 수에는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그 어느 이름이 빠진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이 열거될 때에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 12 지파의 이름 중에 에브라임과 단이 빠진 사실에 대하

여 어색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두 이름이 빠졌더라도 열 둘이라는 지파의 수가 이미 발표된 이상 거기에 이름이 빠진 그들까지 포함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 레위 지파가 빠진 12 지파의 이름이 불려져도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 지파란 하나님의 백성의 온 영역을 표상하는 말이다. 열왕기 상에는 아히야가 그의 옷을 열 두 조각에 찢어 여로보암에게 열 조각을 주었다. 이것은 13 지파 중에 10 지파를 준다는 뜻이 아니요 이스라엘 전국토의 12 지파, 곧 12 도(道) 중에서 10도를 준다는 것이며(왕상 11:30,31),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났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왕에 대하여 십분(十分)을 가졌으니"(삼하 19:43)라고 말한 사실에서도 12 지파는 이스라엘 전 지역, 전 국민을 상징하는 말임을 짐작하기에 넉넉하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이 열 두 이름을 모세가 축복한 말과(신 33장) 야곱이 축복한 말에서(창 49장) 그 특성을 취하고 분석하여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그 성품적 유형으로 나누어 지파별로 분류하려는 시도는(19:136) 성경의 본의(本義)와는 먼 거리에 있는 일이며, 또 현대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단 지파가 빠진 것은 그 지파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든지(4:1338, 1339 ; 3:175) 에브라임이 빠진 것은 그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은(9:74) 이름에 대한 지나친 생각이 빚은 해석들인 것 같다.

이름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관계없이 12 이름이 쓰이고 12 지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 그 영역과 국민 전부를 다 포함한 상징적인 표현인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것은 민족적 이스라엘 전부를 뜻하는 것인지, 혹은 상징적인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차례다.

신약성경에, 계시록 7장을 제외하고 아무 곳에서도 이스라엘 열 두 지파 이름이 모두 기록된 곳은 없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고대의 이스라엘 열 두 지파가 온전히 존속하지 못하였다. "사도 요한은 열 두 지파 중 열 지파는 앗수르에서 소멸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적어도 앗수르에서 많은 수가 흩어졌으며, 예루살렘이 함락된 AD. 70년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그들의 민족으로서 존재를 상실했다"(12:131). 그럼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 나머지 생존한 지파들만 말하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 12 지파라고 하며,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 이스라엘의 혈통적 열 두 지파를 문자적인 의미대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또한 신약성경에 12 지파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의 그 의미가 상징적이라는 것은 자명(自明)한 것이다.

이제 그 몇 곳을 찾아보려고 한다.

마태복음 19:28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가 혈통적, 민족적 이스라엘 지파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때에는 심판이라는 말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이스라엘 열 두 지파는 세상이 새롭게 된 후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대답한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린 것에 대한 상급이 새 세상에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의 심판하는 권세는 결국 왕 노릇하는 사실을 표상하는 말이다. 계시록 20:4에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합

께 왕 노릇하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의 열 두 지파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사도들이 심판한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같은 사실이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27-30).

다음에는 사도행전 26:7에 나오는데, 여기는 바울이 자기 민족의 소망을 말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뜻이 자명하다. 이것은 전 유대 민족을 표상하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또한 야고보서 1:1에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가 나타난다.

이미 말한 대로 신약성경 시대에는 열 두 지파의 분명한 존속이 없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한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도 혈통적 유대 민족일 수는 없다. 그럼로 여기 말한 열 두 지파도 여러 지방과 백성과 방언에 흠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3:173). 흠어져 있다는 말은 베드로전서 1:1에도 쓰여졌는데, 이 흠어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신약성경에서 열 두 지파라고 언급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롬 2:28,29; 갈 6:16).

이러한 단정을 입증하는 비유로 유대인은 찌히고, 이방인이 접붙임 되므로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롬 11:17).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열 두 지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지파의 이름이 불렸을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한 참 이스라엘 전체를 표상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묘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은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의 문이 있고, 그 문 위에 이스라엘 열 두 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성의 기초석은 열 두 보석인데 그 보석 위에 열 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

결국 새 예루살렘은 어린양의 열 두 사도를 기초로 하여 건축되었고 그 출입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 두 사도가 증거한 복음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의 도성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 열 두 지파는 그리스도인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열 네 이름 중에 누구의 이름이 빠졌는지에 상관없이 열 두 지파의 이름을 각각 확인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권(百姓圈)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다.

한 마디로 종합하면 계시록의 이스라엘 열 두 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상징적 칭호인 것이다.

III. 십사만 사천인

이상에서 계시록 7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12 지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포함되지 아니한 이름과 상관없이,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와 상관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 된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임을 알았다.

그러면 십사만 사천인은 무엇인가?

이제는 그 의미를 연구할 차례다.

A. 십사만 사천인을 한정하는 특성 문제

십사만 사천인을 한정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라는 사실이다(계 7:4).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십사만 사천인이 다시 나타나는 곳이 계시록 14장인데, 여기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고 (계 14:1)말했다. 그러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어린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이름은 어떻게 이마에 인 치는가? 이마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 계시록은 그 자체가 상징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11:2). 그러므로 이마에 인 친다는 것도 어떤 사실을 상징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마에 친다함은 그의 사상과 그 품성에 성령으로 인친 바"(9:72)된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역사로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고후 13:8) 사상과 성품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이마에 인 맞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마"는 사상과 품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인은 이와 같이 된 사람들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계 14:4)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역대의 모든 구원 얻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자들이었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인이 인 맞았다는 표현으로 구별된 것은 하나님의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한 무리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12 지파는 하나님의 참 백성, 곧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뜻한다는 것은 이미 연구하였다.

그런데 이들 십사만 사천은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인 맞는다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실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수한 성질이 있는 인을 맞는다는 말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전 생애를 바치는 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뜻이 있는 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인 침은 무엇인가?

"이 인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어떤 표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9:72). 즉 신체의 어떤 부분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적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전혀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인 맞은 증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사실을 어떤 특별한 표적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표지일 것이다.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된 표로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육일에는 이를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출 16:28,29).

하나님께서서는 안식일 준수 여부를 통하여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판단

하였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이다(출 31:13-17, 겔 20:12,20, 22:26, 사 58:13,14). 다시 말하면 제 칠일 안식일이 하나님이 인이라는 말이다(13:231-239, 453-459; 15:427-432, 19:132-136, 18:78).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그의 이름이 그의 직위와 함께 선언된 곳은 제사 계명뿐이다(9:72).

그런데 사도 시대 이후 안식일은 차츰 잊어버리는 바 되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요일이 주일(主日)로 오인되어 그 날을 성수(聖守)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왔다. 이런 일이 일어날 사실은 이미 예언되었고(단 7:25, 8:343,354), 그 예언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식일은 세상에 밝히 드러나지 못하였다(8:486). 그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여부에 관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예언의 기간이 끝나고 안식일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인은 바로 이 때가 이르렀을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사상과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사만 사천인은 이스라엘 12 지파로 표상 된 역대의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서 안식일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므로 특별한 의미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서 특별히 인 맞은 자로 구별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이 안식일 진리가 밝히 드러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의 중재를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야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1844년 7월 밤중 소리가 마쳐질 때 즉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전에 잠들어 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소망 가운데서 무덤에서 쉬고 있다. 그 까닭은 그들에게 그 빛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문이 열린 이래 우리가 지금 가진 안식일 진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17:43-44).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는 시기를 제시하는 말씀이다. 하늘 지성소가 열리고 법궤가 보여짐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에게 참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빛으로 확연히 비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인의 인 맞은 시기는 1844년 이후이다(10:89).

계시록의 예언을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했을(10:17; 9:21) 때 1844년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기가 막 끝나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살아서 주의 사업에 열심한 자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안식일 진리는 세상에 밝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요 그것이 1844년 7월 이후에 인 쳐지기 시작했다면 빌라델비아 시대의 이긴 자들로부터 인 쳐지기 시작한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 언제 인 치는 일이 끝날 것인가? 그것은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인 치는 일이 끝날 것이다(21:66). 왜냐하면 계시록 7장의 인 맞은 자의 수가 발표된 것은 계시록 6장의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이 세상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에 피할 수 없는 공포의 부르짖음으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계 6:14-17)라고 했을 때, 그 대답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3:172). 종이 축처럼 하늘이 말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인 것이다(벧후 3:10-13).

이와 같이 해석할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 그것은 십사만 사천인을 한정하는 특성들

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런 특성들 중에 인 맞은 자라는 특성은 이미 연구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다른 특성들은 무엇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땅에 산 자 가운데서 변화함을 받은 자"(13:517) "그 수효가 십사만 사천이 되는 살아있는 성도들"(17:15)이라는 표현들이다.

이 말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구원 얻을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맛보았는지, 전혀 맛보지 않았는지 성경이나 화잇저서에 언급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았으나(히 2:9) 산 자라고(계 1:18)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맛본 성도라고 "살아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못할 이유가 없고 그들이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았으므로 당연히 살아있는 성도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용법은 계시록 20:4 에도 나타난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하였다.

다니엘 12:1,2 은 특별 부활에 대하여 가르친다(8:575). 이것은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큰 지진에(계 16:18) 의하여 무덤이 터지고 영화롭게 되어 부활하는(13:502) 자들과, 또 예수를 찌른 자들이 예수의 선언대로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기(마 26:64, 계 1:7, 13:502) 위하여 부활하는 자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는,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막 허락의 무지개를 보고 승리의 합성을 울리고 있는 중이요(13:500), 땅에 두려운 광경은 계속되고 있다. 아직 주님은 재림하시기 직전이요,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쏟아지는 상황이다(13:501,502; 17:292,293). 그러므로 이 큰 지진에 일어난 성도들과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성도들은 서로 만나고 알아보고 할 겨를이 없는 것이 틀림없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재림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산 자로서 재림의 시일 발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13:505; 17:15). 그러므로 "살아있는 성도"라는 표현과 "땅에 산 자 가운데서 변화함을 받은 자"라는 표현으로 죽음을 맛본 자들이 십사만 사천에 들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한가지 특성은, 그들은 야곱의 환난을 살아서 통과한(13:517)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계 14:13)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죽음으로 환난을 면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복된 일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죽는 자들의 복이 무엇이겠는가? 곧 십사만 사천인에 참가하는 복일 것이다.

자금 이후란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안식일 기별이 확실히 전파된 이후를 뜻한다(8:575). 그러므로 이때는 빌라델비아 시대의 끝에서부터 시작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시대에 허락한 말씀과 비교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시대의 사람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빌라델비아 시대에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계 3:10)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 인치는 일은 빌라델비아 시대를 지나 라오디게아 시대 초기에 산 사람들로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에 약속한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빌라델비아의 이긴 자들에게 한 약속과 십사만 사천인의 특성은 서로 일치한다.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 동일하다. 빌라델비아의 승리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그 위에 하나님과 예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였다(계 3:12).

그런데 화잇 여사는 십사만 사천인의 이마에 하나님,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17:16)말하였으며 계시록 14:1에는 십사만 사천인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둘째,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동일하다. 화잇 여사는 계시록 7:14-17을 십사만 사천인에게 적용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여 나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사람들이다.

계시록 7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인 맞은 십사만 사천인에 대하여 기록한 다음에 흰옷 입을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와 이 무리의 특성과 상급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무리를 각각 다른 무리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7장 전체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같은 무리의 다른 측면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6:166).

앞 부분에 기록된 십사만 사천이라는 숫자는 요한이 귀로 듣기만 한 수인데 그들은 이스라엘 12 지파의 인 맞은 자들의 숫자이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이 일 후에 요한은 한 무리의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였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으로 보아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의 수를 하나님이 십사만 사천이라고 발표해 주신 것이다.

십사만 사천이라는 수를 들을 때는 간단하나 그것을 일일이 세려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계시록 7장의 십사만 사천과 흰옷 입은 많은 무리는 완전히 동일한 무리이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밤낮 섬긴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 것이다.

또한 빌라델비아 시대의 승리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하였다(계 3:12). 그러므로 이 사실도 이들이 완전히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약속을 하셨는데(계 3:21), 이것도 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계 7:15)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즉 보좌 앞 성전에서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일치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시대로부터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에 신실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십사만 사천인으로 계수 된 것임이 이상의 비교에서 분명하여졌다.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인 중에는 죽음으로 야곱의 환난을 면한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이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시대를 거쳐오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깨닫고 전파하여 신실히 지킨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 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든 자들도 있으나 그들이 예수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깨어 일어나 큰 환난을 맞볼 것이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10:91)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맺은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하여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스럽게 변화되었다."(17:292)

이상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시대의 끝무렵부터 전 라오디게아 시대를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모든 자들이 십사만 사천인의 성품으로 인쳐진 자들이며, 그들 중에 죽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선언되었으니 그 이유는 야곱의 환난 기간의 그 시험의 때를 면하면서도 특별 부활에 참여하여 살아서 그 환난이 끝부분을 목격하는 것으로, 죽지 않고 살아 남아서 그 환난을 다 지나온 자들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인은 예외 없이 야곱의 환난 전 기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화잇 여사는 계시 중에 거룩한 하늘 도성에 들어가서 그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고 어두운 이 땅으로 돌아오기가 싫어서 그 곳에 남아 있도록 해주기를 간청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17:41).

이 기록에 의하면 이미 죽은 화잇 여사가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그들의 특권을 누릴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단어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이 표현은 화잇 여사가 십사만 사천인 중 하나로 포함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만 십사만 사천인과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실만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다. 즉 들리리격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해석들은 재림교회 역사상 지금까지 통일되지 않는 견해로 대립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 "함께-With"가 비슷한 경우에 쓰인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화잇 여사의 생존 당시에 한 신실한 재림교인의 죽음을 두고 그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화잇 여사가 쓴 편지에 나타난다. "그 여자는 인을 맞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나 이 땅에 설 것이고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있을 것을 보았다. 그 여자를 위해 슬퍼할 것이 없는데 그는 환난의 때에 쉼을 얻는 것을 보았다." (21:263)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기록은 환난의 때를 면하고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설 수 있는 인 맞은 죽은 사람에 대한 근거도 된다.

With가 가지는 뜻은 통계에 의하면 약 40여가지가 된다. 그 중에 동반, 일치, 나타내는 뜻이 있는 것이다(5:2870). 그러므로 With라는 단어를 구태여 "포함"이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화잇 여사는 자신의 첫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십사만 사천인만이 들어 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하였다(17:20). 물론 이것은 계시 중의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되는 십사만 사천의 수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화잇 여사는 이 장면에서 "내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갔다고 썼으며 계속해서 "우리"라고 쓰고 있다.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뜻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그들 중에 십사만 사천인이 성전에 들어갔을 것인데 그 중에 화잇이 들어가서 그 성전을 자세히 보았고 금판에 새겨진 그들의 이름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장면에서 화잇은 십사만 사천 중에 포함되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계시가 끝날 무렵에 천사는 그에게 "만일 네가 신실하면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는 특권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화잇 여사는 물론, 그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 곧 빌라델비아 시대의 끝 무렵에 대 재림 운동에 참가하고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이르러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전파하고, 신실히 지키다가 잠든 사람들이 십사만 사천인에 포함되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그러므로 십사만 사천인을 한정하는 두 가지 특성으로 제시된 "땅에 살아있는 성도"라는

것과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특별 부활에 참가하는 자들도 함께 포함하여 묘사된 사실임을 믿을 수 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13:516)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마나 오른손에 표하는 일은 미국이 국법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제정 실시 할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에 죽은 성도는 그 수에 들 수 없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짐승은 벌써 있었고, 그 이름의 수인 666도 벌써 있었다(9:18,19). 이 세력에 의해서 진리는 곡해되고 안식일은 변경되었다(8:343-354, 단7:25). 그래서 1844년 이전까지는 순수한 복음적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대부분이 이들이 제정한 제도를 따랐었다.

그러나 1844년 이후 안식일 진리가 드러나므로 이들이 제정하고 왜곡시킨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때에 안식일을 깨닫고 지킨 자들은 짐승과 그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된 것이다.

아직도 짐승의 우상은 형성되지 않았다(13:222). 그러나 조만간 만들어질 것이다. 이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는 이 우상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이 왜곡시킨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때부터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리를 순종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짐승의 우상을 이긴 모든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모여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노래는 특이한 경험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 십사만 사천인만이 부르는 노래인 것이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가 반드시 최후의 순간까지 죽지 않은 자들이라고만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십사만 사천인은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시대 끝 무렵부터 세상 끝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다가 죽은 자이거나 죽지 않은 자이거나 모두 십사만 사천인에 계수되는 사실을 알았으며, 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자라야만 한다는 뜻과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기도 벗어난 자들이라는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결국 십사만 사천인은 1844년 즉 빌라델비아 시대의 끝 무렵에서 라오디게아의 전 시대를 통하여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거룩히 지키는 일로 하나님의 참 백성 된 인을 맞은 사람들인 것이다.

B. "144,000"의 의미

지금까지 십사만 사천으로 계수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하였다.

이제는 이 144,000이라는 수가 문자 그대로의 실수(實數)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가를 연구할 차례다.

이 문제는 재림교단에서, 초창기부터 논란되어 온 문제이며 앞으로도 논란될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논증해온 사실에 미루어 이 숫자는 상징적일 수밖에 없으리라는 추측은 넉넉히 할 수 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수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다. 그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 (18:21; 1:8) 절대수

2 - (11:3,4) 증인수

3 - (21:13; 18:13) 삼위일체, 하늘의 수

4 - (7:1) 동서남북, 땅의 수

7 - (54회 나타남) 3+4로 완전수

10 - (12:3, 13:1) 세속적 완전수

12 - (21:12, 14) 3×4로 역시 완전수

이상은 기본 수가 기간이 되고 그 변화체(상합한 것, 상적인 것 등)가 무수히 발견된다.”(11:29)

그러므로 12,000인씩 12 지파에서 인 맞은 자 총 144,000도, 계시록의 이러한 상징적 수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미 앞장(章)에서 연구한대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실제적인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로 해석하지 않고 전체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견해이다.

그런데 본 교회의 일부 학자들이 이스라엘 12 지파는 상징으로 보면서 그 상징적 지파의 계수된 수는 실제적인 수로 보려고 한다. 이것은 해석의 평형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같은 사실을 말하는 동일한 장면에서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보고 다른 부분을 실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2 지파가 상징이면 144,000도 상징이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상징적인 수가 나왔을까? ”먼저 삼위(三位)를 나타내는 숫자 셋은 넷과 곱하여졌는데 이는 모든 피조물을 말하며 인침을 받은 자들이 동, 서, 남, 북에서 온다는 것을 뜻한다. 셋에다 넷을 곱하면 열 둘이 된다. 이 숫자는 삼위(3)가 온 우주(4)를 운영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12:131).

그러므로 12 지파는, 물론 고대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땅 사방에서 오는 무리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 첫 부분에 땅의 사방 바람을 잡고 있도록 부탁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즉 이 144,000이 땅 사방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 사방이란 곧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12,000씩을 특별히 인쳤다는 것은 안식일 진리가 드러난 시기 이후에 이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완전하여진 많은 무리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12 지파에 12,000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특히 진리가 온전히 드러난 시대에 그 진리를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다니엘 8:14의 2,300주야의 뜻이 해석되므로 비로소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8:424-428, 480, 481, 13:171-03) 구속의 역사의 전체적인 뜻은 성소를 통하여 확실하고 완전하게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시 73:16,17).

그러므로 성소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전에는 구속의 진리가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라도 그러한 시대에 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 문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빛이 주어지지 않았”(17:44)기 때문이다.

그러나 2,300주야의 해석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최후에 개혁되어야 할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완전한 회복과 준수 문제였다.

”안식일의 개혁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 성취될 것에 대하여 이사야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13:231)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길을 수

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사 58:12-14).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하는 말씀이다. 안식일을 소위 로마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변경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회복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황무지는 개간되고 무너진 데가 수복되고 여러 해의 무너진 기초가 세워져야 할 때가 이르렀다”(13:233).

이와 같이 성소 문제의 이해로 여러 해 동안 무너져 회복되지 못했던 안식일 문제가 회복되고 성경의 전체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소 문제를 깨달아 안식일이 회복된 온전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인 맞는 자들은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완전한 자들인 것이다. 이런 사실로 숫자로 표현할 때에 $12 \times 12 \times 1,000$ 으로 나타내었고 그 총화가 144,000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뜻하고 또 12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했음을 뜻하며, 거기에 곱한 1,000은 충만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144,000은 완전하고 완전하여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구원 얻었을지라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그러므로 144,000인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계 14:4)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144,000인을 완전하고 완전하여,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말하였다.

히브리어로 1,000을 가리키는 엘레프()는 집단, 종족이라는(2:20, 사 6:15) 의미가 있는데, 계시록이 비록 헬라어로 기록되었을지라도 그 사상의 바탕이 히브리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1,000에 해당되는 부분을 무리, 집단이라고 보면 12,000을 완전한 종족, 144,000을 완전하고 완전한 종족이라고 해석하면 더 합리적인 의미가 된다.

이와 같은 수형(數形)은 계시록 21장에서도 보게되는데, 곧 새 예루살렘의 구조에 나타난다.

새 예루살렘은 그 성곽이 12,000 스다디온인데 장, 광, 고가 같았다. 그리고 그 성벽 두께가 144척이다. 계다가 그 기초석이 12 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12 보석이고 성문이 동서남북에 각각 세 개씩 12개이다. 이것도 144라는 수형을 이룬다. 그런데 성의 크기를 말한 12,000스다디온 장, 광, 고와 144척 두께는 이 성의 완전성을 상징한다. 지상의 예루살렘도 평화의 성읍이라는 이름이지만 결코 평화롭지 못하였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절대적이며 완전한 평화가 있는 성읍임을 상징하는 수형인 것이다.

이러한 완전하고 완전한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 의한(12 사도)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된 (12 지파의 이름이 성문에 기록된 것)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수형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144,000이라는 수는 성소 문제를 깨달음으로 완전한 진리를 소유하게 되고, 그 진리에 충성스럽게 순종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임이 틀림없다. 즉 1844년 이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구원을 받은 모든 무리들을 상징하는 수인 것이다. 이들이 바로 계시록 12:17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에,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이들은 성소 문제 제반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 있었으므로, 그들만이 성소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것처럼 성소 문제를 깨달음으로 개혁이 완성된 진리를 가지게 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특권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이다.

IV. 결론

A. 요약

지금까지 144,000인에 대하여 상황하게 논의하였다. 이것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려고 한다.

144,000인이 기록된 계시록의 두 장면의 상황을 보면, 이들은 역사의 특별한 시기에 큰 환난을 겪고 승리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는 환난의 때를 면하고 이 특권을 누리는 자도 포함된다.

계시록 7장 후반에 있는 큰 환난을 통과한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에게 허락된 특권은 대쟁투 하권 517페이지에 144,000인의 특권으로 인용되었고, 또 7장의 구조로 보아 이 두 무리는 동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빌라델비아 시대에 승리한 자에게 허락한 말씀과 144,000인이 특성은 완전히 동일하다.

그러므로 환난의 때를 면하고 144,000인의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빌라델비아 시대 후반부터 라오디게아 시대를 거치면서 안식일 문제를 깨닫고 주 안에서 충성하다가 죽은 자들이다. 안식일이 이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의 인으로 계시되었고 이것을 깨닫고 지킨 자들은 그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로부터 그 이후 시대 동안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충성하였으면 그들이 비록 죽을지라도 특별 부활에 참가하여 144,000인의 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144,000이라는 수도, 같은 수형을 새 예루살렘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12 성문과 12 기초석과 144척의 성벽 두께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계시록 자체의 상징성과 아울러 어떤 상태를 상징하는 수형임이 확실하다.

즉 12는 완전수요, 12×12 는 완전하고 완전한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144,000은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를 상징하는 수이며 하늘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고 완전한 도성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44,000인은 세 천사의 기별, 곧 완전히 개혁되고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충성하므로 당하는 큰 환난을 통과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 얻은 모든 성도, 즉 2,300주야 끝에 구성된, 참된 의미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전체를 상징하는 수적 표현인 것이다.

B. 결론

이상 연구의 결론을 적으면 다음과 같다. 계시록 7장의 이스라엘 12 지파는 그 빠진 이름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144,000은 $(12 \times 12) \times 1,000$ 으로 새 예루살렘의 구조인 장, 광, 고가 12,000 스다디온이요, 성

벽 두께가 144척이며 12 기초석과 12 성문이라는 수형과 같다. 이 수치(數値)는 완전성과 충만성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12 지파 중에 12,000씩 인 맞는 자 총수 144,000은 1844년 이후 성소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므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표를 지닌 완전한 무리들의 완전한 수를 뜻하는 상징적인 수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완전한 복음 곧 1844년 이후 개혁이 완성된 진리인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그 기별에 충성하므로 이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여자의 남은 무리인데 이 역사의 종말기에 예수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직분을 담당하는 제 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요, 이 무리 중에 그날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모든 자들이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이런 특권과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절감하여 시대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성경전서. 서울 : 대한성서공회, 1968.
2. 고영민, 성서원어대사전. 서울 : 기독교문화사, 1973.
3. 김재준, 요한계시록. 서울 : 대한 기독교서회, 1968.
4. 류형기, 성서 주해 Vol.IV. 서울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출판부, 1968.
5. 문재치, 뉴월드 영한 대사전. 서울 : 시사영어사, 1973.
6.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부산 : 성문사, 1955.
7. 박영환, 성서헬라어사전.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5.
8. 신계훈, 다니엘서 새연구. 서울 : 삼육대학, 1979.
9. 예언의 소리 성경 통신강좌, 요한계시록연구. 서울 :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1973.
10. 왕 대아, 계시록연구. 서울 : 시조사, 1932.
11. 이상근, 신약주해 요한계시록. 서울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68.
12. Hendriksen, W., 넉넉히 이기느니라. 서울 : 아가페 출판사, 1975.
13. 화잇, 엘렌 지., 각 시대의 대쟁투 하, 서울 : 시조사, 1960.
14. 화잇, 엘렌 지., 사도행적. 서울 : 시조사, 1977.
15. 화잇, 엘렌 지., 살아남은 이들. 서울 : 시조사, 1963.
16. 화잇, 엘렌 지., 선지자와 왕. 서울 : 시조사, 1976.
17. 화잇, 엘렌 지., 초기문집. 서울 : 시조사, 1975.
18. Anderson, R.A., Unfolding the Revelation revised. Mountain View, Calif. : Pacific Press Pub. Asso., 1974.
19. Heskell, S.N., Story of the Seer of Patmos. South Laneaste, Mass. : Lancaste Printing Company, 1905.
20. White, E.G., Selected Messages from the Writings of E.G.White Book One. Washington, D.C. : Review & Herald Pub. Asso., 1958.
21. White, E.G., Selected Messages from the Writings of E.G.White Book Two.

Washington, D.C. : Review & Herald Pub. Asso., 1958.

22. White, E.G., Testimonies to Ministers and Gospel Workers. Mountain View, Calif.
: Pacific Press Pub. Asso., 1962.